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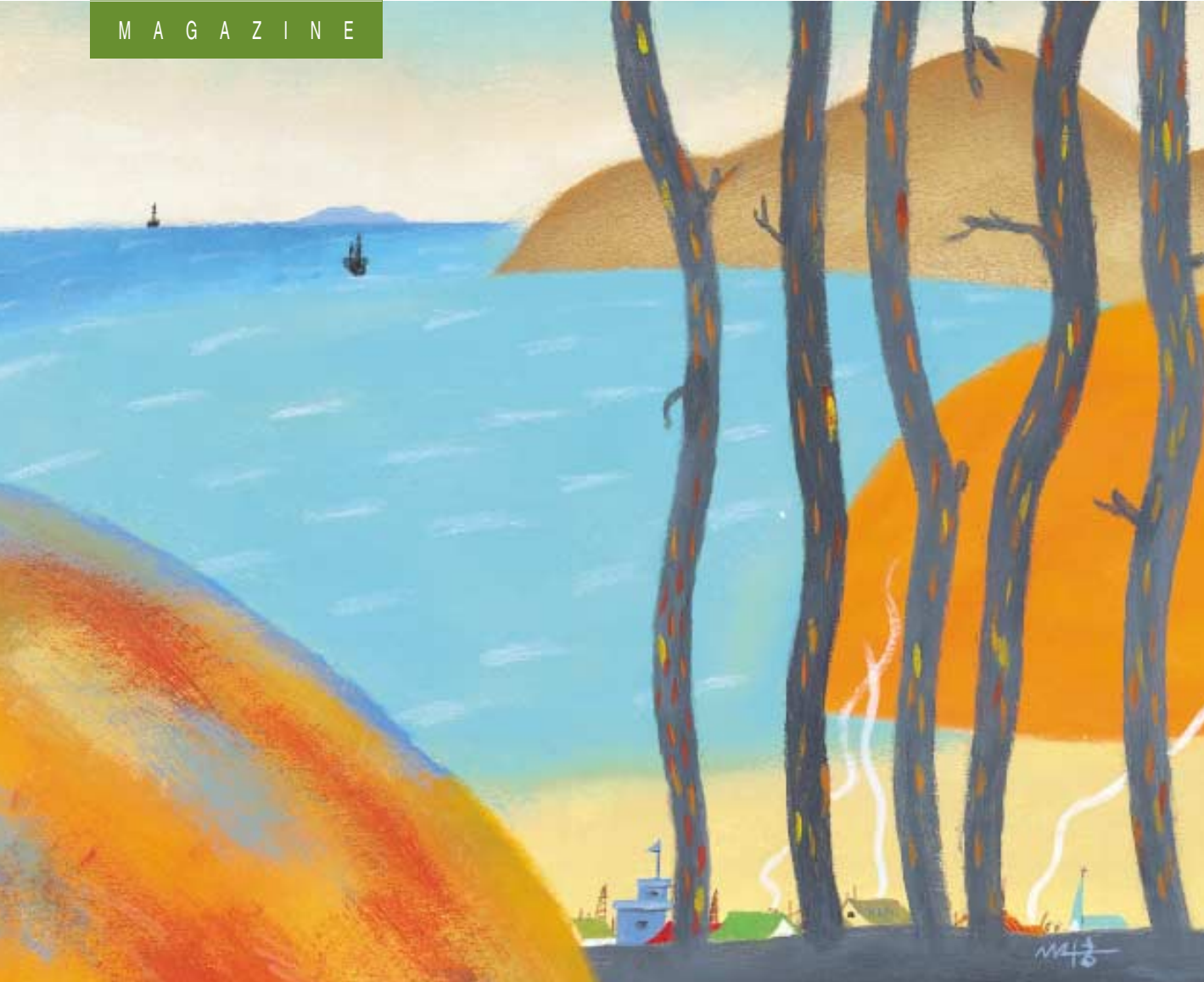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11월호(통권157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1 **11**



한국의 바나나 ‘으름’ 그 시큼한 맛이 약이 된다

‘으름덩굴’은 제주도·울릉도·황해도 이남의 낮은 산지에서 자라는 덩굴성 낙엽관목입니다. 길이는 3~5m 내외로 가지는 털이 없고 갈색이죠. 잎은 여러 개의 작은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붙은 겹잎(장상복엽 掌狀復葉)으로 작은 잎은 5개입니다. 그 모양은 도란형(倒卵形) 또는 타원형(橢圓形)으로 잎 밑이 날카롭고 잎 끝은 약간 오목하답니다. 암수한그루로서 4~5월에 자주빛을 띤 갈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긴 꽃대에 꽃자루가 있는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게 붙어서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향기가 있죠. 수꽃은 암꽃보다 작고 6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암꽃에는 수술의 흔적만 있고 3~6개의 심피가 있습니다. 꽃잎은 없고 3개의 꽃받침조각이 꽃잎같이 보입니다. 열매 ‘으름’은 ‘한국의 바나나’라 불릴만큼 그 모양이 닮았죠. 9~10월에 암자색으로 익어 세로로 터지는데 장타원형의 육질(肉質)로 속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 칸마다 검은 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으름덩굴의 과육(果肉)은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이 약간 시큼하죠. 덩굴로는 바구니를 만든답니다. 민간에서는 소염이뇨제로 이용하고 한방에서는 약재로 씁니다.

월간

우리 문화

2001 · 11

2001년 11월호(제15권 11호 통권 157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11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 나무가 외롭습니다. 지붕위로 뻗는
 연기가 피어오를 즈음 만선(滿船)의 깃발
 을 꽂은 배들도 하나둘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돌아갈 항구가 없는 이
 들이 많다는 것을 세상속에서 배웁니다.
 두꺼운 옷을 하나씩 꺼내드는 계절. 가을
 나무는 하나씩 옷을 벗고 있습니다. 가을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9 ◆ 고향이 좋다③-화성시



52 ◆ 행사-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49 ◆ 행사-문화의 날



5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2 ◆ 날줄씨줄 · '韓流 열풍' 과 한국문화

김종호

4 ◆ 역사再조명 · 진나라 황후자리에 오른 곡성의 효녀 심청

양권승

8 ◆ 이달의 문화인물 · '천태종' 개창자 의천

편집부

9 ◆ 고향이 좋다③ · "21세기에 문화는 정보를 타고 흘러야"

강민철

17 ◆ 특집 · 實戰 문화원정보화

최영근 · 박재순 · 김정기 · 한기홍 · 한정규

28 ◆ 포럼 · "향토문화, 이제는 디지털이다"

전명찬

32 ◆ 문화계 CEO의 삶과 일 · "문화는 바꾸는게 아니라 따라가는것"

박계현

34 ◆ 월드컵! 지역문화로 이기자 · '오름' 닳은 경기장, '올레' 같은 진입로

김동훈

37 ◆ 우리문화는단 · 총수출의 0.3% 못미쳐... 상품 未분류 '걸림돌'

황동열

40 ◆ 문화교실 ·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편집부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 문화학교 경쟁력의 원천은 '지역특성화'

김두진

49 ◆ 행사 · 박형진 원주문화원장등 5명 문화훈장 수훈

강민철

52 ◆ 행사 · 강원도 '하평 답교놀이' 대통령상 수상

박계현

5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 사라져 가는 장승을 '현대인의 생활속' 으로

강민철

58 ◆ 이달의 세시풍속 · 음력 10월 상달은 '한국판 추수감사절'

박후식

60 ◆ 특별기고 · 30년전의 약속을 찾아서...

김길수

62 ◆ 대중문화 · 베이징 골목사이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박계현

64 ◆ 다시생각 · 日 역사 교과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㉑ 기존 7종교과서

편집부

66 ◆ 전통의 멋과 맛 · 屈非, 귀양살이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다

류장수

69 ◆ 지역문화 뉴스 · 4박 5일간 문화원장 일본공민관 연수

편집부

76 ◆ 신간안내 · 檀君史略과 檀君殿

편집부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2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편집부

80 ◆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순례 · 남양주문화원

강민철

‘韓流 열풍’ 과 한국문화

최 근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어느 문화계 인사는 베니스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진 베니스 리도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가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기가수이자 텔런트인 안재욱의 대중가요음반을 틀어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주인과 거의 모든 종업원이 중국인이어서 중국 대륙에 불고 있다는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 이유야 어떻든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럽의 음식점에서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뿌듯했다고 한다.

그 문화계 인사가 경험한 대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물이나 현상을 만나는 일은 반갑기 그지없다.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합축된 생산물이고, 이를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향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가움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홍콩·대만·베트남 등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확산돼 ‘한류 열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비롯,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힘입어 공산품까지 포함해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수출품도 예전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니, 종합적인 수출산업의 측면에서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긍심과 기대가 모래위에 쌓은 성이어서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류의 실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과 함께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함정이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지금의 한류 현상에 정작 한국 고유의 문화적 색깔이 깊이 배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를 논할 때 흔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역 고유문화의 특성을 알맹이로 삼고, 이를 세계 보편의 정서와 접목시켜 현대화할 때라야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을 합성한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용어도 나왔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현상의 바탕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한국문화라기보다 한국인이 보여주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서양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문화 고유의 특성, 한국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와 차별적으로 지닌 색깔이나 향취를 찾아보기



김 종 호
문화일보 편집국장석 부장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문화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내세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류에 대해 우리나라의 어느 문화평론가가 '복제를 통한 서양 팝(Pop)문화의 재생산'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배경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현대 대중문화의 흐름이나 속성이 그렇다는 해도, 한 나라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문화적 자긍심과 함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선호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자면 대중문화일지언정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풍토, 이를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조해내고 현대적 정서와 접목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문학·미술·음악·출판 등 이른바 순수문화의 종합적 내실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적 색채 없으면 머잖아 한류 열풍 '반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전달하거나 정통적 형태로 나타내야만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한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표현 형식이 서양식이라든가 한국문화의 고유성이 내용의 깊은 밑바탕을 이루고 있거나, 내용은 굳이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띄지 않더라도 표현양식에서 한국문화의 특성이 충분히 배어 있다면, 조금도 닮았 바 못될 것이다. 한류 현상의 안팎으로 한국문화의 색깔을 입히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든지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류 열풍의 문화적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나 한국 문화산업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21세기에 문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무한경쟁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화적 힘을 과시해야 할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계기의 하나를 한류 현상으로 삼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근 들어 일각에서 지적하기 시작한 대로 한류 열풍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들떠 실체를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

한 나라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문화적 자긍심과 함께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선호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마들이 중국 등지에서 방영돼 안방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중가수의 음반과 현지공연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인기 가수와 텔런트가 그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다고 많은 언론이 전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나라의 상당수 청소년은 한국의 인기 연예인처럼 보이기 위해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이런 현상에 힘입어 한류가 대중문화 분야에 그치지 않고 한국식 패션·한국식 요리·한글 배우기 등의 바람도 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유행에 따른 '거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베이징에 상주하는 한국 기업 등의 주재원 77%가 앞으로 길어도 3년안에 한류 열풍이 퇴색할 것으로 전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도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의 인기 댄스그룹으로 지난 9월 중국에서 공연한 베이비 박스, NRG 등은 성황을 기대하고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빌렸으나 막상 공연장에는 800여명밖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인기그룹 HOT, SES, 신화 등을 스타로 만들어낸 데다가 이들을 통해 한국 대중가수들의 한류 열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는 공연기획사 대표 이수만씨는 얼마전 사석에서 "2천만원을 들여 HOT의 음반을 중국 시장에 내놓았으나 사실은 2백만원밖에 건지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물밑듯이 밀려드는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위치를 벗어나 문화 발신자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화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로 한류 열풍을 장기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문화계 안팎의 차분한 접근과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진나라 황후자리에 오른 곡성의 효녀 심청

전라도 내륙 깊숙히 위치한 곡성이 심청의 출생지이며 심청전의 배경지라는 주장의 근거는 '관음사사적기'다.

사적기에는 관음사 창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창건시기는 서진해 제영강(西晉惠帝永康)년, 즉 백제 분서왕 3년(300)으로 백제에 불교가 전래(384년)되었다는 공적 기록보다 무려 80년 이상 전 시대로 설정되어 있다.

사찰은 그 후 홍무 7년(1374)까지 다섯 차례 중건됐고 정유재란(1597)때에 원통전(圓通殿) 이외에는 모두 소실됐다. 사찰의 재건은 萬曆辛亥年(1611)에 시작돼 崇禎丙子年(1636)과 康熙戊戌年(1718)에 원통전을 복원, 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사적기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관음사연기설화는 심청전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심청전의 대표적 근원설화이며 동시에 곡성이 심청전의 배경지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적기의 시대적·공간적 배경에 결함이 있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에 가탁한 허구적인 이야기로 사학적으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적은 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심청이 실존인물이며 동시에 곡성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사적기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근 2년에 걸친 연구와 1000여권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

과 '관음사사적기'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되었다는 사실을 한·중·일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홍장이 전설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이라는 것과 이 실화로부터 지금의 심청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이 작년 KBS 1TV 역사스페셜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심청전의 근원설화라고 여겨지는 '관음사사적기'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관해서는 일부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거나 인용된 사례는 있으나 전문을 소개한 경우는 조선사찰전서(권상로) 등 두 세권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문헌이 일제시대에 발간된 것이어서 연구자들조차 전하기가 쉽지 않다. 한글로 번역된 '관음사사적기'는 현재 6종류가 소개되고 있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번역자나 찬자에 따라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관음사사적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관음사사적기의 '홍장' 이심형

대홍이라는 고을에 홍장이라는 장님의 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원량은 비록 소년 시절에 장님이 되었지만 청렴강직하고 기개가 고상했으며 그의 딸인 홍장은 부친에 대한 봉양이 극진해 나라안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날 원량이 밖에서 나갔다가 홍법사(弘法寺) 회주승 성공스님(化主 性空大師)을 만나게 됐다. 성공



양 권 승
한국국보학연구소 부소장

대사는 어젯밤 꿈에 부처님께서 현몽 하시기를 “내일 길을 나서면 장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는 이번 불사에 큰 시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시주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원량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딸 자식밖에 없으니 그 아이라도 대작불 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홍장은 평생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자신의 장래가 걱정되어 애 통했으나 결국 아버지를 하직하고 화주스님을 따라 나섰다. 홍장과 화주스님은 오랜 여정으로 치저 소랑포(蘇浪浦)에 이르러 쉬기로 했다. 그런데 바다 멀리 붉은 배가 보이더니 순식간에 나루에 이르러 홍장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희는 진나라 사람인데 황후께서 봉거하신 이후로 성상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가운데 하루는 꿈에 신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새 황후 되실 분이 이미 백제에 태어나 장성하셨으니 과히 슬퍼하지 마시오’ 하고 현몽하시어 소신 등이 동국으로 달려가서 황후를 맞이하라는 상명을 받자와 이제 다행히 성의를 여기서 보옵게 되었나이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홍장은 배에 싣고 온 폐백을 화주스님께 드리고 대신 중국사신을 따라 진나라로 가게 됐다.

홍장이 진나라에 당도해 진나라 황제를 배알했으니 그 덕과 지혜를 갖춘 모습에 진나라 황제는 찬탄해 마지않았으며 황후가 된 홍장은 항상 정업을 닦고 행하기에 힘쓰니 온 나라 백성의 칭송이 자자했다. 또한 조국을 잊지 못하는 마음에 오십삼불(五十三佛)과 오

백성중(五百聖衆), 십육나한(十六羅漢)을 조성하도록 한 다음 본국에 보내 감로사(甘露寺)에 봉안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황태자에게는 탑을 조성케 하여 금강사(金剛寺)와 풍덕현(豐德縣: 현재 京畿道 開豐郡) 경천사(敬天寺)에도 모셨다. 이렇게 본국을 위해 공덕을 쌓는 한편 황후는 자신의 원불(願佛)로서 관음성상(觀音聖像)을 조성해 조석으로 발원해 모시다가 석선(石船)에 실어 백제로 띄어 보냈다.

이때 옥과(玉果: 現 곡성군 옥과면)에 사는 성덕(聖德)이라는 아가씨가 우연히 집에서 나와 해변에 이르렀는데 석선에 실린 관음금상(觀音金像)을 보고 놀라 몸을 단정히 하고 관음상을 등에 업으니 가볍기가 홍모(鴻毛)와도 같았다. 그리하여 성덕은 낙안을 출발해 고향인 옥과 땅으로 향했는데 도중에 열두 개의 정자를 만나 쉬어갔다. 열한 번째 정자를 지나자 성덕은 등에 업힌 관음상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고 관음보살을 모실 인연처가 가까워짐을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 터를 잡고 관음성상을 모셨다. 이곳이 곧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全南谷城郡 梧山面 善世里; 오산면은 예전에는 옥과현 화면이었음)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다. 그런지 얼마 후에 산 아래의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며 소원을

빌었는데 하나같이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예불 기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후세 사람들은 주산(主山)을 성덕(聖德)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성덕산이라 했으며 성덕보살은 관음사의 개산조(開山祖)가 되고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됐다. 그리하여 성덕산은 관음영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관음신앙을 서민적 영원 속에서 통불교적으로 널리 홍포(弘布)해 오고 있다.

한편 홍장의 아버지 원량은 딸과의 이별의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홀연히 눈을 떴다.

이상의 ‘관음사사적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설화가 왜 ‘효녀 지은’ 설화나 ‘빈녀양모’ 보다 심청전의 근원설화로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관음사사적기’에는 홍장이 중국 진나라 사신에 의해서, 심청전에서는 남경상인에 의해 팔려가 중국의 황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상으로 보면 국제 결혼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진서채모전

여인인 셈이다. 전라도 내륙에 위치한 곡성의 처녀가 멀리 중국에까지 팔려가게 된 배경은 3~4세기에 활발히 전개된 한중 해양교류사와 큰 관련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관음사 조성시기에 섬진강·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서부는 활발히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관음사사적기’의 배경은 해안가가 아닌 내륙 깊숙히 위치한 곡성지역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보면 공간적 배경으로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곡성지역은 양질의 철이 다량으로 생산되던 국제철광 교역시장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철로 칠지도를 만들어 백제왕이 일본의 천황에게 하사한 사실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곡성에서 생산된 철은 중·일본은



소조금니불상

물론 한반도 북쪽의 예맥과 고구려에도 수출됐다. ‘관음사사적기’에 나타난 관음사 조성사실에는 철광석을 매개로 한 국제통교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학술팀의 정밀답사를 통해 송정마을 인근이 야산에서 고대 시대에 철을 주조했던 터가 발견되었는데 이곳 촌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렸을 때(일제시대) 땔감을 구하러 이곳에 왔다가 녹슨 쇠붙이가 있어 고물상에 판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는 ‘관음사사적기’의 시간적 배경이 허구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심청전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 ‘관음사사적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관음사사적기’가 심청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심청이 남경상인의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다. 이처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실제로 있었는가?

본 연구팀은 중국의 금석문 자료와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 등에서 무사향해를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만약 섬진강 유역에 이러한 철산이 없었다면 상인들이 처녀를 구하기 위해 섬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깊숙히 들어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신공희의 사례는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자 후기에 이르러 토용·석비·철부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 보면 ‘관음사사적기’가 전해지면서 변개되는 과정에 인신공희의 사례가 첨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산지 향해·충청도로 주장하기도

심청이 태어난 곳이 황해도 황주·충청도 대흥현이라고 하는 주장은 ‘관음사사적기’의 배경지를 둘러싼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이며 학계에서 ‘관음사사적기’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심청의 출생지는 전라도 곡성과 충청도 대흥, 그리고 황해도 황주 등으로 대별되는데 이 3가지 지명은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다. 관음사 연기설화에는 동 사적기의 배경이 충청도 대흥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지리지 등을 보면 백제시대에 대흥현이라는 지명이 없었다. 실제 대흥현은 금주나 임존성으로 불리다가 신라통일 후에는 임성군으로 고쳐지고 고려초에 이르러 대흥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충청도라는 지명도 조선조에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지명이다. 따라서 ‘관음사사적기’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송광사의 백매선사는 관음사 장로의 구술을 토대로 세간에 전해지는 관음사 연기설화를 기록해 나가다가 특정 지명이나 인명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음사사적기

고증을 토대로 조선 영조 당시의 명칭으로 수정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향간에 전해지던 심청 또는 원홍장의 출생지가 대홍과 발음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가 상통하는 명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교롭게도 황주의 옛 명칭이 대홍이었다. 또한 인근 마을에 승상벼슬을 한 인물의 생가가 있고 중국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사적기의 공간적 배경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심청전의 공간적 배경이 황주로 둔갑하는 이유로 대홍로 전승되어 오던 지명이 백매선사에 의해서는 발음이 비슷한 충청도 대홍으로 기록되고 완판본 심청전과 창본에 이르러서는 대홍의 조선조 명칭인 황주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른 이본보다 선행하는 경판본 계열의 심청전에서 공간적 배경이 남군, 또는 남섬주부로 명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섬주부란 직역하면 섬진강이 있는 남쪽의 고을이라는 뜻이다. 이는 관음사가 있는 곡성 일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관음사연기설화가 심청전의 근원설화라는 결정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음사연기설화에는 대홍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홍법사가 등장한다. 이 절은 맹인인 원랑에게 딸을 부처님께 드리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전한 화주승 성공대사가 다니던 절이다. 문장의 구조로 보아 대홍이라는 곳과 홍법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홍법사라는 절은 실재하는 것일까? 사찰 관계 문헌에 의하면 홍

법사는 경기도 개성과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그리고 경기도 하성군 서신면 홍법리 등 3개소가 소개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곳이 용주사의 말사로 서신면 홍법리에 1611년에 세워진 홍법사이다.

이 절에는 관음사연기설화와 비슷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1610년경이고 홍만석의 딸 홍랑이 명나라로 잡혀간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일단 이 설화는 효녀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찰의 조성 경위가 관음사 창건기와 유사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홍과 홍법사는 100리 남짓한 거리여서 관음사연기설화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 '관음사사적기'의 판각시기가 홍법사의 창건시기와 100년 정도의 시차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음사사적기'에 나오는 홍법사는 백매선사에 의해서 가탁된 사찰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이는 심청전에서 홍법사 대신 몽운사 또는 몽운사로 그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관음사 창건시기인 3~4세기 경에 화주승이 다니던 절은 홍법사나 몽운사와 같은 특정 이름을 가진 사찰이었다기보다는 아마도 후세에 전승과정에서 붙여진 명칭일 것이다. 따라서 관음사연기설화에 나오는 홍법사를 지금의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홍법사로 추정해 이와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충청도 대홍을 원홍장(심청)의 출생지로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살펴보면 때 '관음사사적기'가 심청전의 근원설

화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며, 이는 학문적으로 충분히 재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홍장편년 유물 시대고증 오류질 예정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위치한 관음사 원통전에는 중국으로 시집간 효녀 홍장이 고국에 계신 눈먼 아버지를 그리며 조성해 보냈다는 금동관음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조사해 관음사 원통전을 국보 273호로 지정하고 경내에 봉안 중인 금동관음상은 보물 214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6.25 동란으로 관음사 경내가 소실되면서 이들 국보급 유물이 사라지게 된다.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이 관음불상의 시대편년을 고려말로 비정하고 있다. 이는 '관음사사적기'의 시대적 배경인 서기 300년과 무려 1천년의 시간적 오차가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관음사사적기'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근원이 되어 왔다. 최근 관음사 경내에서 발굴된 소조금니불의 시대 편년이 서기 4~5세기로 소급되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면서 '관음사사적기'를 재평가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심청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6.25에 소실된 금동관음상은 관음사가 다섯 번째 중창된 고려 공민왕 23년(1374)에 조성된 것이며 최근 경내에서 발굴된 소조금니불은 효녀 홍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물로 비정하고 있다. 향후 방사선에 의한 시대고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

‘천태종’ 개창자 의 천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해 47세로 입적할 때까지 오직 구법(求法)과 전등(傳燈)을 발원했다. 수행과 학문과 강학(講學)으로 일생을 살았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그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 고승이면서 탁월한 불교학자였고, 우리나라 천태종의 시조였다. 그리고 교장(敎藏, 즉 續藏經)의 간행, 천태종의 창설, 활발한 국제 교류 등 의천의 활동과 업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종의 넷째이자 인예태후(仁睿太后)이씨의 아들인 의천은 1505년(문종 9년)에 태어났다. 이름은 후(煦), 자는 의천(義天), 대각국사는 그의 국사호다. 국사 32세 때에 송의 철종이 즉위함에 따라 그는 휘 ‘후(煦)’를 피해 이때부터 이름 대신에 자 ‘의천’을 사용했다.

불교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고 넓은 이해가 있어 장소의 수집과 ‘신편제종교장총록’의 편성, 교장의 조판과 그 전파 등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세계 불교사에서 도 선구적인 것이었다. 불교 교학의 연구서만을 집대성 간행한 교장은 장소의 보존과 유포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 불교계의 교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여러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의천의 업적은 천태종(天台宗) 개창이다. 그는 천태종 개창의 뜻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는데, 지자대사탑(智者大師塔) 아래서의 발원으로 그 의지를 더욱 다졌다. 그의 천태종 설립 과정은 인예태후(仁睿太后)가 국청사(國淸寺)를 짓기 시작한 선종 6년(1098)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그는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1천여 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청사가 완공되고 국사가 이 절의 주지로 취임해 천태교관(天台敎觀)을 강설하게 됨으로써 肅宗 2년(1097) 5월 고려의 천태종이 개창됐다. 국사는 선교(禪敎)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천태종 창립이 당시 선종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선종 승려 중에 천태종으로 옮겨 온 자가 10명 중 6~7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시대의 천태종 개조(開祖)로 선(禪)과 교(敎)의 수행을 함께 추구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서를 모아 속장경을 간행한 인물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각국사문집’ ·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이 있다.

명이나 되었을 정도다. 국사는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인 조계종 모두에서 발견되는 선교 어느 한 쪽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선교의 통합을 지향했다. 그는 화엄종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관병수(敎觀并修)를 주장하고, 선교일치사상으로 선종을 포섭하려 했던 것이다.

의천은 교장을 간행하고, 천태종을 창설했으며, 교관병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그의 업적이자, 사상적인 특색이지만, 교학 연구 자세나 방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또한 적지 않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학구열,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천년 이후를 생각하는 혜안,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신라 불교의 특수성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활발한 국제학술교류, 방대한 자료의 수집, 엄격한 비판과 정밀한 교정, 후학을 위한 계속된 강의 등 진리 탐구 자세는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문화원장 인터뷰 '문화원의 탈바꿈' 강조하는 천광인 화성문화원장

“21세기에 문화는 정보를 타고 흘러야”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천광인 화성문화원장(59). 그는 네 티즌이다. 이메일 주소는 chun1000ki@yahoo.co.kr. 외국 유학을 하고 있는 1녀2남의 자녀들과도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는다. 한양 공대 출신으로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천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 문화원도 탈바꿈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상실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94년 문화원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해당 시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것만이 문화원의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원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기’·‘지역문화의 해’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제는 문화가 관광이고 산업인 시대입니다. 이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문화원도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전국의 문화원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년동안의 숙원 ‘문화원사’ 건립

1964년 ‘향토문화지킴이’로 기치를 내건 화성문화원은 지난 6월 1일 비로



천광인 화성문화원장

소 38년 동안의 숙원을 푸는 연건평 3백10평의 2층 짜리 문화원사를 개관했다. 96년 문화원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 원장이 내놓은 현금 5백만원을 ‘종자돈’ 삼아 뜻 있는 문화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3천5백만원을 만들고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특별교부금을 끌어들이

총 13억5천만원을 마련해 쌓아올린 성과다. 1층에 21만 화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인터넷·정보자료실·전자도서관 등 첨단 문화기기가 들어간 ‘향남 문화의 집’을 입주시킨 것도 “앞으로 문화 사업은 정보매체라는 혈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흘러가야한다”는 천 원장의 소신에서 나온 것이다.



(위로부터)문화학교 도예반 · 서예반 · 사물놀이반



화성문화원 향암 문화원의 집

천 원장은 94년 문화원에 첫발을 들여놓을 당시 잊지 못한다. “문화원이 어디에 붙어있나 하고 가보니까 당시 화성군청이 들어서 있던 오산시의 공설 운동장 스탠드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문화원의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좋은 시설과 건물을 갖춰야만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활동공간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무엇보다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는 시간 · 공간 ·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문제가 바로 공간 확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문화원 살림을 하기가 보통 힘들게 아니겠다는 생각에 아예 손을 대지 말까하는 생각도 슬그머니 나더군요”

당시 화성문화원은 4백50만원의 빚까지 짊어지는 등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다행히 이 빚은 전임자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해결했고 천 원장은 문화원에 현금 5백만원과 르망 승용차 한 대를 사서 기탁했다. 지금도 연간 2백만원씩 회비를 낸다. 승용차를 기탁할 생각을 한 건 천 원장이 ROTC 2기 병기장교 출신인 탓으로 “뭘 제대로 하려면 우선 기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후 한명씩 한명씩 이사들을 영입해 6개월만에 이사회를 발인했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으로 있는 선배에게 부탁해 50평 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문화원을 이전했다. 다시 2년 정도 지난 97년 시가 보유하고 있는 10평 정도 더 넓은 60평 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이사했다. 지금의 원사는 4번째 원사다. 신혼부부 살림 늘려가듯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온 셈이다.

“공룡알화석지에 자연사 박물관을”

화성문화원은 고장의 문화예술인이자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 선생을 기리는 ‘난파동요제’를 올해로 7회째 열며 내일의 음악영재를 길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유적순례 및 문화체험’을 통해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와함께 천 원장은 ‘3·1 독립만세 재현행사’와 ‘풍농제’ · 전통민속발굴사업사업’도 꾸준히 주최하거나 후원해 오고 있다. 특히 천 원장은 문화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로 민속사료조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현재 텅 비어있는 35평의 민속사료실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대한 양의 사료를 확보하고 공간도 늘려나갈 생각이다. 그런 한편 천 원장은 이미 미술인협회와 서가협회 · 사진가협회를 탄생시켜 문화 저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원이 활성화되면 분원을 뒤희한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화성은 면적이 서울보다 1.7배 넓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탄면과 서시면의 거리가 40km를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제7회 난파동요제



전시회를 둘러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천광인 원장이 지금 보다 활성화되면 3개 권역으로 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천 원장에게 문화원의 주력사업을 묻자 “지난 사업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내년도부터는 고유사업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정보매체를 통해 문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전의 고유 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행사 홍보 자체도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 생각이 라고 말하는 그는 특히 화성의 유명한 관광지인 제부도 앞에 있는 공룡알 화석 산출지에 관심이 많다.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바다에 잠겨있던 것이 육지로 노출됨에 따라 발견된 공룡알 화석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에서 수많은 공룡알화석 및 알둥지가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양생물이 점차 육지생물로 대체되어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곳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도로망이 조금만 더

확충되면 영종도 국제공항과 1시간 이내 거리가 되어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문화관광지로 각광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문화 발전 기원하는 '맷돌탑' 세워

천 원장의 생각은 중국적으로 화성 문화의 발전에 가 닿는다. 이를 문화원 사 오른편에 세워진 맷돌탑이 잘 말해준다. “문화가죽으로 부터 맷돌 1백50쌍을 기증받아 '맷돌탑' 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맷돌 두개가 모자라 밤 11시에 문화원가족 집에 가서 가져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맷돌은 콩을 두부·비지 등 여러 형태로 변형시키는 서민의 생활도구로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풍요롭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단의 12개 맷돌은 십이지간을 뜻하며 37개의 계단은 화성문화원 창립 37년주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위에 출산을 상징하는 남근석을 얹어 문화



맷돌탑

가 영원히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문화원의 뜻을 담았습니다”

지난 94년 문화원장으로 취임해 큰 1억원 가량의 사재를 털어가며 문화원 발전에 헌신을 다한 천 원장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정채되기 쉽다”는 말로 문화원의 '신진대사' 를 강조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처음과 끝이 똑같이 열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나같은 경우 한번 연임해 내년까지 8년을 문화원장으로 있게 됩니다. 노련한 맛은 있을지 모르나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웃음)”

그는 문화원이 변신해야 한다는 말을 두어번 되풀이했다. “내년 연초쯤에 후임을 물색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원 사정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을 구상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에게 공만 들이고 빛을 못봐 섭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다른 사람이 와서 힘이 안들면 좋은 거지요”라고 답한다.

- 임기가 끝나면 뭘 하실겁니까?

“취어야지!”

그의 말이 소탈하게 들렸다.☞

화성문화의 일꾼과 예산

얼마전 박대진 사무국장이 퇴직함에 따라 천광인 문화원장과 박지영 과장이 1인다역을 하고 있다. 이사 30명, 감사2명, 그리고 운영위원 140명. 화가·음악가·교육계 등 문화예술인사와 ·시의회의원 등이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상운영비가 4천5백여만원이고 사업비는 민간이전사업을 포함해 2억5천만원.



그곳에 가고싶다 단풍에 싫증 났거든 '신비의 바닷길' 열리는 제부도로 가라

오메!! 바지락 살것네!

나 가을. 단풍 구경에 싫증이 났거든 갯내음이 풍기는 제부도로 떠나보자! 갈바람에 나뭇구는 낙엽을 발로 차는 재미는 없을 지 모르나 한여름 수많은 인파가 남기고 간 후 다시 홀로된 스산한 분위기의 바다는 늦가을을 맞는 인간의 기분과 흡사하다.

하루에 두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려 사람들은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지난 70년도에 주민들이 돌을 놓아 왕래하기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갯벌을 걸어다니거나 조그만 나룻배로 통행했다. 88년 포장공사를 시작해 10

여년이 흐른 99년 2차선으로 재공사했다. 도보로 걸거나 승용차로 달리다 보면 갯내음과 함께 양쪽에 운동장처럼 넓게 펼쳐진 갯벌이 태양에 반사되어 흑진주처럼 반짝인다.

아! 눈이 부시다. 하얀 것만이 아름다운 아니구나. 오후 2시 물빠진 제



부도 갯벌은 한 점
티를 모르는 '검은
미인'이다.

이곳에 연간 1백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연인
이나 가족끼리 소풍처럼 나와 바지락
을 캐는 재미도 쏠쏠하다. 개인 여행자
들 가운데는 매바위 위쪽에서 바지를
건어붙이고 호미로 바지락을 캐는 모
습이 눈에 들어온다. 30명 이상의 단체
객인 경우 어촌계가 운영하는 체험어
장을 이용해볼만 하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1인당 4천원으로 여행사들이

단체 관광객들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자주 왔다 간다. 조성원 어촌계장
(011-494-9471)이나 화성시청 문화
관광과(031-369-2069)로 문의.

혹여 바지락을 캐지 못했다고 해도
바지락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수도룩하
다. 제부도는 온통 먹거리 판이다. 상
가 밖으로 나와 호객하는 주인의 손을
뿌리치기가 미안하다. 바지락을 넣은
칼국수와 왕새우회·소금구이·게
장·화성불낙지가 유명하다. 특히, 옛
날 임금님께 진상하던 자연산 굴과 양
념으로 밥을 지어 맛장과 굴탕을 곁들
인 화성굴밥은 10월에서 4월까지 먹을
수 있는 계절식으로 그 맛이 담백하다.

또 모처럼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왔
다면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용건릉에
가 보는 것도 좋다. 용건릉은 효
자 임금인 정조가 뒤주



에 갇혀 죽은 아버
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뜻이
어려 있는 곳
이다. 이 용
건릉은 노부
모를 버린다는
뉴스를 간혹 접

하며 살고 있는 우

리 세대로 하여금 효를
생각케 한다.

홍살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두갈래가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용릉, 왼쪽에는
건릉이 자리잡고 있다. 용릉은 정조대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훗날 장조로 추
존)와 혜경궁 홍씨(훗날 경의왕후로
추존)의 합장릉이며 건릉은 정조와 효
의왕후의 합장릉이다.

일화 하나. 정조대왕은 그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양주 배
봉산에 있는 영우원을 지금의 화산으
로 옮겼는데 이 왕릉 주변에 송충이가
대단히 창궐해 애써 키운 소나무를 갉
아먹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정조가 서둘러 능에 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송충이의 기승이 차마 눈뜨
고 못볼 지경이었다. 화가 난 정조가
송충이를 잡아 깨물면서 '아무리 미물
일 망정 네 어찌 내가 부친을 그리워하
며 정성껏 가꾼 소나무를 갉아 먹느냐'
고 꾸짖고 돌아서자 마른 하늘에서 천
둥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져 송충
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또 가까이에 있
는 용주사는 용릉의 원찰로 국보 120
호인 범종과 천연기념물 264호인 회양
나무가 있으며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철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화성에는 또 고려 의종때의 효자 최
루백이 호랑이에 물려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삼강행실도'에
수록돼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이처럼 화성은 효의 고장이다. 또 한
가지 화성 나들이객들을 위한 조인 한
마다. 일본인들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
당한 23명의 열이 살아 숨쉬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 꼭 가보라고 일
러두고 싶다. 일반인들에게 '제암리 교
회'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곳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 장소로 자주 찾
아오지만 실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천도교인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항쟁을
했던 곳이라는게 안내원의 말이다. 서
해안 고속도로 발안 인터체인지에서
좌측으로 5백미터 지점.(031)369-
1663☎

화성문화원 추천 출향인사 인터뷰 草根木皮 못잇는 장운우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

“퇴직후 문학이든 공예든 고향에 봉사할 것”

코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를 뭐
인 라 부르는게 좋을까? 시인 아니
면 공예인? 3년에 한권꼴로 지금
까지 무려 10권의 시집을 묶어냈으니
누가봐도 중견시인임에 틀림없으나 그
는 뭐니뭐니해도 30년동안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몰두해온 공예인에 더 가
깝다. 현대 콧수염 때문인지 어느 문인

은 홍콩지역의 전설적인 보스 이름을
본따 ‘마카리오 장’이라고 불렀다.

장운우 성신여대 교수 겸 박물관장
(64). 지난해 세워진 한국공예문화진
흥원의 이사장이란 감투까지 써 더욱
바빠진 그를 잿빛 하늘이 드리운 10월
15일 가을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
여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공예 문화에 관심이 많다. 전공분야도
금속공예. 그는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디자인협의회를 지난 72년 창설
한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회원전 및 공
모전을 해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
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도 문화상품
100선을 선정해 작가들의 판로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예비엔날
레 개최를 계기로 한국공예관을 개관
하는데도 힘썼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한해에 3만명 가량 쏟아지는 공예 전
공 대학졸업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터와 연결시켜 주자는 취지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제는 공예인들 사이에서도 상품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려는 시
도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주창하던 공예의 문
화 상품화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무엇
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

조병화가 스승... 마광수는 제자

37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 이사장은
초등학교 1학년때인 일제말기 부모님
을 따라 화성으로 내려갔다가 광복후
서울로 올라왔으나 50년 6.25가 터지
는 바람에 다시 화성으로 내려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화성하면 무엇보다 조무래기들과

“미술의 순수
성만을 주장하
던 시절이 있었
습니다. 그때는
문화산업이란
말이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일
췌었습니다. 하
지만 이제는 문
화산업이 아니
면 얘기가 안되
는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자신이 늘 주장
하던 “문화산업
이 열매를 맺는
단계”라며 흡족
한 표정을 감추
지 못한다. 장
이사장은 문화
산업 중에서도



장운우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수인선 협회 열차가 지나는 간이역 ‘야목’에서 보면 인천 앞바다 수평선에 미군함이 가득이고 ‘썹썹이’가 하늘을 날며 폭격을 하곤 했습니다. 아카시아 꽃잎 따 먹고 소나무 껍질 · 찢레순으로 굽주린 배를 채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 시절 훗날 우리 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쟁쟁한 스승들 아래에서 공부하는 행운을 안았다. 소설가 황순원이 국어선생, 철학자 안병욱이 영어선생, 시인 조병화가 수학선생. 그가 대학을 진학할 때 국문과를 접고 응용미술을 선택한 것도 조병화 선생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 두 갈래길을 놓고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그를 보고 조병화 선생은 당신도 시인이지만 수학을 가르친다며 “응용미술을 공부하면서 문학도 할 수 있다”는 말로 인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대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낮에는 미술실기를 지도했고 저녁에는 글을 썼다. 그의 호 ‘목훈’은 자신이 존경하는 박목월과 조지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소설가 마광수가

그의 제자다. 63년 당시 대한매일 신춘문예에 ‘겨울東洋畵’ ‘傳說을 告發하는 者로’ 등 2편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시집도 ‘겨울 동양화’로부터 시작해 ‘두사람의 풍경과 리삼월’까지 총 10권을 펴냈다. 63년도부터 73년 까지 서울을 비롯한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전주 · 목포 · 충무 · 진주 · 삼천포 · 마산 · 제주 · 서귀포 · 강릉 · 속초 · 춘천 · 공주 · 청주 등 전국각지를 돌며 자작시화전을 가졌다.

70년부터 문화원과 ‘인연’ 맺어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30년 이상을 성신여대 강단에 서오고 있다. 이 대학 부설 산업미술연구소장 · 산업대학원장을 거쳐 현재 박물관장으로 재직중이다. 현재 미술대학 최고참 교수다. 인도 뉴델리의 어프로시안 라이터스 워크샵을 비롯 프랑스의 국제 PEN대회 · 제12차 세계시인대회에 참가했으며 서울신문문우회장과 한국문협시분과회장 및 PEN 이사 · 감사원 문화환경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91년 예술문화공로상에 이어 98년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화성에 대한 관심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다. 추석 · 설 등에 선산을 찾는 것 말고도 매홀문화제나 경기도 미술전람회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출품인이거나 심사위원 자격으로 화성을 방문한다.

“도시화가 덜된 탓인지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아 우리같은 출향인에게는 반가우나 뒤집어 보면 내 고향 화성이 그만큼 발전이 덜 됐다

는 얘기로도 들려 기분이 썩 좋지않은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옛날의 모습에 화성연쇄살인 · 씨랜드 사건등 나쁜 이미지가 결합돼 고향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한다.

그렇지만 고향에 대한 애뜻함과 향수는 누구모지 앓게 크다. 지난 6월 1일 문화원 이전 기념식에 다녀온 후에도 화성시 홈페이지에 시승격과 문화원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화성문화원은 천광인 원장이 애를 많이 써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향 문화원장을 추켜세우는데 아낌이 없는 그는 “따지고 보면 지방문화원과의 인연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70년대 초 시화전 전국 순례를 할 때에는 대전 시내 문화원에서 전시회를 했으며 지금은 서울시 양천구에 살면서 양천문화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

현재 양천문화원 부원장으로도 활동

하지만 수구초심(首邱初心)이라고나 할까?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양천에 대한 사랑도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화성에 대한 향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눈치다. “내후년 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직하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고향에 문학이든 금속공예이든 어떤 것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호를 딴 가칭 ‘목훈기념 코너’를 자력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용주사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에 걸린 그림

◁ 용주사에 소풍나온 어린이들



용주사,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그리고 화성8미

화성에 가면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려있는 용주사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암리 3.1운동 유적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엔 바지락 한 그릇이나 포도 한송이 맛을 보는 것도 재미다. 화성엔 8미로 꼽히는 특산품이 있다. 갯벌 속의 진미 화성 바지락을 비롯 맛의 왕으로 손꼽히는 불낙지, 보약이 따로 없는 화성수라정 쌀, 당도가 전국 제일인 꿀포도, 무공해 청정수로 키운 느타리버섯,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꿀참외, 푸른들과 청정자연에서 키워진 한우 고기, 무공해 황토에서 재배한 알타리무가 그것.



화성불낙지, 화성느타리버섯, 화성알타리, 화성수라정 쌀, 화성꿀참외, 화성한우고기, 화성 꿀포도, 화성바지락(위부터 순서대로)

〈‘고향이 좋다’에 소개된 화성관련 사진은 화성시청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집

實戰! 문화원 정보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이고 ‘정보의 시대’ 다. 다시말해 ‘문화정보의 시대’ 다. 전국에서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지금 ‘문화정보’ 라는 파도 앞에 서 있다. 혹자는 한국의 지역문화 정보를 콘텐츠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이야말로 21세기에 도약할 ‘준비된 정보회사’ (ISP)라고 말하는가 하면 혹자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정보화가 늦어 대중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한다. 어쨌든 문화원이 얼마만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자화상이 바뀔것이다.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實戰! 문화원정보화’ 를 다룬다. <편집자 주>

실무자가 말하는 문화원 정보화의 현황과 미래

도메인 <지역명.or.kr> <지역명 cul.or.kr>로 통일 어떤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문화기본정책방향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 중에 이 정책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방문화원의 경우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문화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더 문화원의 위상과 발전을 생각하는 대목이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문화원은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이라도 지방문화원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문화원은 현재 각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린 문화학교(문화강좌)운영과 지역축제 그리고 향토사연구자료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시도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해 향토문화자원을 편찬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젠 이를 바탕으로 우리문화원이 문화정보산업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문화의 자산’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가공해 정보의 바다 사이버공간(인터넷) 속으로 보내는 작업을 실현했으면 한다.

사이버 공간서 향토문화보급해야

지방문화원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국 212개 지방문화원이 통일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원의 인터넷 주소는 <~.or.kr> 또는 <~.org>를 사용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의 사이트를 통일했으면 한다. 예를들어 <지역명.or.kr> 또는 <지역명cul.or.kr>등을 제안해보는데 주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통일한다거나 기존의 홈페이지 주소를 틀에 맞추어 바꾸어야 하는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등록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미리 선점해 부득이 현재의 문화원 홈페이지 주소를 문화원 의견과는 달리 등록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여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방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미지를 통일해 주민이 쉽게 찾아가는 사이버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212개 지방문화원 중 15%에 불과한 30여개 문화원이다. 물론 금년 또는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문화원이 홈페이지 개설을 완료해 1문화원 1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



최영근
도봉문화원 과장

소만을 등록해 개설을 미루는 문화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사이버문화원을 설립하는 비용으로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고의 향토사료조사수집비를 활용해 사이버향토문화연구소를 개설해 지역의 향토사료를 사이버공간에 집대성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쉽게 사이버공간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지방문화원의 실정에 맞추어 적극 검토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한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무직원의 지속적인 전산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전산교육은 매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사무국장연수회나 간사연수회가 아닌 전국문화원연합회 산하 시·도지회가 추진하는 직원전산교육이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문화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이 많으면 4~5명이고 대부분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한명의 직원이 서무·행정·회계·문화행사등 다방면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전산교육을 하면 언제 다른 업무를 할 것인가 하는 문화원도 있겠지만 문화원의 전산화 즉 사무자동화는 이 모든 일을 하나로 통합할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보화와 사무자동화는 엄밀히 다르지만 직원의 전산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서술하고자 한다. 직원전산교육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문화원 중에는 전산(컴퓨

터)교육장을 갖추고 주민대상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으며, 전국의 지방도시(시·군·구)에도 전산교육장을 갖춘 문화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 지방문화원에서 해당지역 문화원의 직원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은 지방문화원의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면 되고, 초청강사비와 약간의 운영비만 확보되면 직원전산교육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전산교육장시설을 갖춘 문화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문화원의 행사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일정을 정해 대부분의 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요층·운영방법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에 말했듯이 문화원의 홈페이지주소를 통일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원의 이미지를 통일하고 국민(지역주민)들이 전국의 지방문화원 사이트를 방문해 한국의 지방문화를 쉽게 검색하고 그 지방의 문화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시·도지회 그리고 지방문화원간의 문화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문화원’은 문화의 중심을 말하며, 지방문화원은 그 지방의 문화중심을 뜻한다.

지방문화원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생각하고 구축

했으면 한다. <누구를 위해 구축하는가?> <누가 이용하는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산교육은 매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사무국장연수회나
간사연수회가 아닌
전국문화원연합회 산하 시·도지회가
추진하는 직원전산교육이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문화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이 많으면 4~5명이고
대부분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한명의 직원이
서무·행정·회계·문화행사등
다방면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전산교육을 하면
언제 다른 업무를 할 것인가 하는
문화원도 있겠지만
문화원의 전산화 즉 사무자동화는
이 모든 일을 하나로 통합할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원 고유의 콘텐츠 개발하려면

문화정보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가공해야

현 재 인터넷을 통한 정보량의 급속한 증대와 활용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1백50만개의 웹 페이지가 탄생되고 있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인터넷 활용은 이제 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대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홍보 수단 만이 아니라 마케팅의 주요 수단이며 기업의 매출액과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매체인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고민하는 사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정보의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으며 또한, 가치정보의 지속적인 확보와 새로운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순발력 있는 정보의 가공 및 변형에 대한 기술력 미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그야말로 가치정보가 넘치는 보고(寶庫)를 갖고 있는 단체라 생각한다. 물론 단체의 설립목적을 생각해서는 최대의 이윤추구를 위한 일반회사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의 지역문화정보 및 지역향토문화자원에 관련된 사실에 근거한 다양한 색깔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대한 정보회사(준비된 ISP업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아마도 가치정보를 획득해 상품화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정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게을리 한다면 먼지 자욱한 수퍼마켓의 빛 바랜 과자처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을 끊을 것이다. 이것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에서 가급적 유용한 자료를 집적, 정제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려는 배려가 없다면 날로 고급화되는 정보 소비자의 입 맛을 맞추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영문화 작업도

인터넷은 우리만 사용하는 망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정보의 채널(Channel)이다.

이점은 모든 웹사이트의 내용은 다국어로 가능한 번역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방대한 양과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중요한 향토문화자원에 대한 영문 번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수한 한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비전문가의 중간 처리과정 없는 정확한 정보형태로 그대로 전달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향토문화자료 및 기타 문화자료의 수요분석을 면밀히 수행한 다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형태를 분류하고 정보 요구사항을 정리해야한다. 또 그러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어느 문화원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역특색과 내



박 재 순
한국통신 통신망 연구소
선임연구원

용의 충분성을 고려해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활용토록 정보기술을 이용,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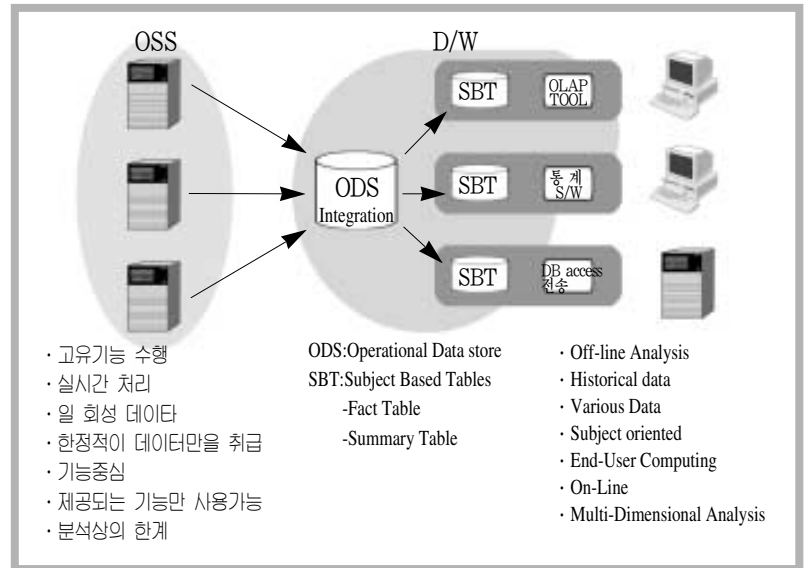
아마 독자들도 한 두 번은 들어본 용어로 전사적 데이터웨어하우스(EDW: Enterprise DataWarehouse)구축이 바로 소개하고픈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종합적 분석검토 아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부문(또는 각 지사)에서 사용하던 각 단위시스템의 중요한 정보들을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하고, 활용에 문제가 없는 사전 규약된 공통의 자료규격으로 정제,변형해 다양한 의사결정 계층과 분석계층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은 우리가 생활에서 늘 접하는 대형할인 마트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 및 각종 제품서비스의 제공 방법과 유사하다.

위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면 OSS(Operational Support System)는 지역 또는 단위운영시스템(즉, 지역적인 Data Base)으로 이들은 지역(Local)에서 처리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ODS(Operational Data Store)는 여러 OSS의 DB에서 다양한 사용목적의 수요에 의해 수집되고 정제된 통합 DB이다. 이 ODS는 DW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데이터웨어하우스(D/W)구성도 〉



이 DW에 속하는 SBT(Subject Based Table)는 특별한 의사결정에 활용 할 수 있거나 다양한 통계적 분석, 온라인 분석처리 등을 지원하는 독립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다.

지방문화원 자료 통합 관리 필요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기능성을 볼 때 그리고 향후 늘어가는 각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구축대상 정보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며 OSS는 각 지방문화원의 소장 자료들을 생성하는 데이터 집합체로 생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자료(소비자가 원하는 자료들)를 전국문화원연합회 통합 DB(ODS)로 수집해 다양한 목적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성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자

료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배려에 늘 감사하는 그룹이 점점 많아져 단체 운영의 궁극적 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자면 현재 웹사이트의 제공정보에 대한 웹 로그 분석을 우선 실시해 정보 사용자와 정보검색현황을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현재 웹사이트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고품질의 문화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필요정보에 대한 실체가 파악될 때 앞서 언급한 D/W의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자연스런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라 하니 우리 모두가 참다운 휴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문화자원에 관련된 다양한 테마기획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다.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동영상 촬영은 자기가, 편집은 전문가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는 정보 전달·커뮤니티 형성·비즈니스 구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집만들기

가장 처음 단계는 건물의 '설계'에 해당하는 '기획'이다.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 홈페이지 제작방법, 향후 관리방법 및 예산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선 홈페이지의 전체 모양을 만들고 글자와 이미지·메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기획의도에 가장 적합하고 방문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 디자인 작업은 일반인들도 약간의 교육과 제작 도구인 웹에디터를 활용해 작업은 가능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에디터에는 '나모 웹에디터'와 '드림위버'가 있다. 하지만 회원가입·게시판·검색·방명록 등의 DB프로그램의 기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컨텐츠 제작

컨텐츠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적은 분량의 문서자료는 HTML과 디자인 작업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CD-ROM 타이틀로 제작하거나 홈페이지에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근래에

는 PDF 문서로 변환해 서비스하는 것이 거의 표준으로 정착됐다. 변환 비용은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천페이지 정도의 한글문서를 변환할 경우 35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아볼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유하고 있는 사진·그림 등의 기초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해야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스캐너는 기능과 성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자 필요에 따라 적정 가격의 스캐너를 구입하도록 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진·그림뿐만 아니라 현상된 필름을 직접 스캔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캐너를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동영상도 촬영된 tape를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장비가 영상캡처기이다. 양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영상캡처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가격은 30만원대부터 2백만원 이상까지 있으나 안정된 제품을 구입하려면 1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실제로 영상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편집하고,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영상파일을 변환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영상캡처, 편집, 변환의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캡처보드를 장착한 영상작업용 PC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백50~4



김 정 기
(주)채널인 대표

백만원의 비용(영상캡처보드포함)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영상편집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점차 디지털캠코더(비디오카메라)의 가격대가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기존 영상자료를 활용하거나 캡코더만 구입해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 및 변환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촬영부터 편집·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호스팅 및 유지관리

웹호스팅은 대용량의 서버와 전용선·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서 개인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서버 일정 공간을 임대해 고유의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상을 원활하게 서비스(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서버라는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데 고가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 업체에 스트리밍 호스팅을 받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의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웹호스팅 업체들이 스트리밍 호스팅까지 병행하고 있다. 웹호스팅 비용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위주로 운영할 경우는 월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 동영상서비스를 위한 스트리밍 호스팅 비용은 동영상물의 용량과 회선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훨씬 높은 금액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면 콘텐츠 및 회원 관리에서부터 기술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버관리·디자인 수정·콘텐츠 제작 등 홈페이지를 기술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호스팅 업체나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의 개념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운영까지 대행하려하기 보다는 홈페이지 담당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가장 저가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는 방법은 직접 제작해 호스팅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가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초기 제작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콘텐츠의 분량과 디자인, 기능 등에 따라 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3백~5백만원 정도의 제작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업체에 따라 더욱 저가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너무 싼 가격에 제작을 의뢰하면 원하는 정도의 홈페이지를 만

들지 못할 수도 있을뿐더러 잘못하면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문**



구분	내 용	소요비용	비고
도메인 등록	국제도메인	약 12,000~19,000원/년	
	국내도메인	약 22,000~30,000원/년	
	한글도메인	약 14,000~17,000원/년	
웹호스팅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호스팅	약 11,000~33,000원/년	최저가 기본형
스트리밍 호스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호스팅	약 33,000~55,000원/년	최저가 기본형
스캐너	사진, 그림 컴퓨터 저장 장비	100,000~400,000원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영상 촬영 장비	500,000~4,000,000원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사진 촬영 장비	300,000~1,500,000원	
캡처보드	영상 컴퓨터 저장 장비	300,000~2,000,000원	
디지털 영상편집PC	디지털 영상 편집 장비	2,500,000~4,000,000원	캡처보드 포함

이렇게 문화원 정보화 하고 있다

4억원들여 17개 문화원 통합정보망 구축

문화는 인류가 삶을 통해 체득한 생활양식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명사든지 그 뒤에 문화를 덧붙여 어색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그간 우리가 사용해 왔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등으로 구분하던 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생활양식에 정치라고 하는 문화현상이 있고, 또 경제·사회·교육이라는 문화현상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문화의 구성요소들인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 실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부연하자면 세계는 크게 문화와 비문화(자연)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양자의 구분은 가치의 발현(發現)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문화에 편입되었다는 것(文化化)은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에 내재된 가치가 합목적적으로 발현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어떤 목적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그 목적은 다름아닌 가치라는 단어로 포괄된다.

우리가 생명유지를 위해 대사활동을 해야 하듯이 문화 역시도 유기체적 성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가치를 창조하고 또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성체가 유지·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유기체적 성격이 스스로를 확대재

생산하는 과정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이버라는 새로운 문화영역을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치 중에서 가장 최근에 문화에 편입된 문화현상으로, 어느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컴퓨터·스캐너 보급...ADSL도

이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정보화와 사이버는 시대적 조류임을 깊이 인식해 충청남도의 주도하에 4억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도내 17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정보시스템(사이버 지방문화원)을 구축하고 있다.

향토고유민속, 향토사, 지역문화 발전의 자립기반 구축과 도내 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충청남도 문화다지텔화 선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업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상의 문화원 법정고유사업을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해 충실히 수행하고 내실을 기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이번 사이버 지방문화원 구축사업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내 17개 문화원에 컴퓨터와 스캐너가 보급됐으며 10월중으로 ADSL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내 17개 문화원의 개별 홈페이지가 각각 개설돼 운영되고 그 관리는



한 기 홍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사무국장

해당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충청남도내 문화원들의 전산 정보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개별 문화원들은 사이버 지방문화원으로 한데 링크되어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게돼 문화원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지역문화발전 · 정보화 확산에 기여

포털 사이트로 구축되는 충청남도의 사이버 지방 문화원의 콘텐츠는 크게 도내 문화원, 문화원커뮤니티, 향토문화자료관, 향토문화축제로 분류된다. 사이버 지방문화원은 한국전산원 및 충청남도 관계관 여러분과 시스템 개발회사, 자문위원단 그리고 충청남도내 문화원 사무국장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해 4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1년이라는 노고를 투여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아직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 있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못하지만 (2001년 12월 가동 예정) 사이버 지방문화원을 통해 우리 전국

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웹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자립기반의 구축과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 충남지역 고유의 향토민속문화를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인프라가 구축된다.

넷째, 지역문화의 활동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확대돼 문화활동을 촉진시킨다.

다섯째, 충청남도내 17개 문화원을 포괄하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고유의 향토문화를 보존 · 전승하며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시킨다.

이밖에도 많은 부문에서 여러 효과가 예견되지만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전국문화원연합회 충

청남도지회의 사이버 지방문화원의 구축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문화원도 정보화 마인드에 적극 합류해 그 모범이 돼야 하겠다.

전기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또 후기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은 바뀌어 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와 비례해 그 변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상을 살면서 그 흐름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도태는 필연이다. 나노초(10억분의 1초) 단위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24절기를 논하다면 과연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겠는가?

모름지기 문화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파(破)와 격(格)을 끊임없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정 의와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과감히 파하고 파한 빈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이 입어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며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이다. 

대메뉴서비스

포털사이트	문화원커뮤니티	향토문화자료관	향토문화축제	도내문화원
▶ 공지사항 ▶ 문화소식 ▶ SITE MAP ▶ 자유게시판 ▶ 관련사이트 ▶ 지역자료방 - 역사 - 인물 - 지명 - 문화재 - 민속 ▶ E-Card ▶ 게임	▶ 관리자 ▶ 관련사이트 ▶ 템플릿 ▶ 콘텐츠 ▶ 알림판 ▶ 공지사항 ▶ 자료방 ▶ 축제자료 ▶ 도서목록 ▶ 이미지자료 ▶ 영상자료 ▶ 축제메일전송 ▶ 사랑방짓기 ▶ 메일전송	▶ 자료검색 - DTD별 검색 - 엘레먼트 검색	▶ 축제일정 - Calendar - 상세일정 ▶ 이미지자료실 ▶ 동영상자료실	▶ 문화원소개 ▶ 사랑방 ▶ 문화광장 - 문화교실 - 문화강좌 - 문화행사 ▶ 지역자료방 ▶ 도서목록 ▶ 게임 ▶ 자유게시판 ▶ FAQ ▶ 향토문화축제 - 이미지자료실 - 동영상자료실

이렇게 문화원 정보화 하고 있다

‘공공근로’ 활용 자료입력 비용 대폭 절감

세상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PC방 모니터 앞의 사람과 원격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채팅을 하고 있다.

얼마전 21세기 첫 전쟁, 미 테러사건에서도 보듯이 컴퓨터를 통한 서로의 교신활동을 전개한 전자우편(E-mail), 또한 각종 주요 정보가 무궁무진해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 통신으로 접속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 뱅크,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일상 집단생활은 점점 가속화돼 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는 1천만 명에 가까우며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조금만 인터넷을 접해본다면 아무리 컴퓨터를 모른다 해도 금방 그 유용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그 활용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분야를 내세워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전자우편과 화상통신용으로 사용하면 신개념의 통신수단이며, PC방의 오락용으로 사용하면 오락기가 된다. 그리고 종이도 없이 오직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과 잡지, 언제든지 듣고 싶은 방송을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 언론과 대중매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한편 예전에는 도서관 열람카드를 일일이

뒤지고, 서점에서 한두시간 정도는 족히 뒤져야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 목록을 찾을 수 있고, 전국 유명 서점의 책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홈페이지 개설... 3만명 '접속'

이와 같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속초문화원은 1965년부터 줄곧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하면서 향토문화 구축을 위해 기본 바탕을 마련해 왔다. 속초시의 향토문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이 사회를 거쳐 2000년 사업 일환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속초문화의 역사 방향, 앞으로 추진할 사업, 그동안 발간해 온 서적 등을 나열하면서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성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그동안 발간한 서적들의 내용과 산재해 있는 문화재, 역사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하나씩 챙겨 보기로 하고 작업에 임했다.

인터넷 세계의 거미줄처럼 얽힌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필요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계획서를 만들었다.

1차 계획에서는 1백페이지 분량을 정리하다보니 이것은 홈페이지 개설 계획이 아니었다. 2차 계획을 재작성한 후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 2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필요



한 정 규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했다. 콘텐츠를 구성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입력에 2/3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그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때 마침 3월부터 시청의 공공근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청과 협조해 공공근로를 신청, 3명의 인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없는 자료입력을 4개월여 기간동안 벌이면서 예산의 절반이상을 줄이게 됐다.

지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제작처에 원고 및 제반 지원사항을 제공하고 콘텐츠 구성비용과 디자인에 1백50만원, 전용회선(ADSL)설치, 관리운영비를 연 50만원을 별도로 주는 조건하에 계약,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동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가닥씩 자리를 잡으면서 점검하고 사진자료를 수집하면 스캔작업, 원고와 사진편집, 초기화면 및 본문 디자인, 동영상 등을 수록하면서 드디어 2000년 7월 1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시장을 비롯 지역인사, 문화원 회원과 이사를 모시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식을 개최했다.

내년 '속초 향토전자정보도서관' 완성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주민 등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속초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야후, 라이코스, 다음 등을 비롯 여러 검색사이트에 등록한 결과 현재까지 3만 명 정도가 접속했지만 앞으로 더많은 문화네티즌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더 많은 지역

정보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이 자리에서 안주할 상태는 아닌 것이다.

또한 문화원 사업에서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초점을 뒀 2001년 초 일반사업비 홈페이지 운영비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영문화 작업을 피해 지난 5월초 영문판도 오픈을 했다. 원고 정리를 하고 1백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작성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해 콘텐츠 구성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진작가의 도움으로 수준높은 관광지 사진과 동영상의 업그레이드, 이와같이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는 가장 지역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자리를 매김하는 콘텐츠 구성 매니아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

지금도 공공근로 직원들은 그 지경

다 지겨운 자료입력의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며, 이제 2002년이면 속초지역의 향토전자정보도서관으로서 자리를 굳힐 것이라 판단해 본다.

현재의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를 접할 때는 끊임없이 이 정보에서 저 정보로 훑어 보기를 반복한다. 한편의 책을 펼쳐놓고 집중해 읽는 기존의 정보수집 방식과 백과사전이나 다름이 없는 인터넷을 중형무진하며 글을 읽는 것은 문화적인 큰 차이가 크다. 더구나 검증되지 않는 정보제공자가 워낙 많아지다보니,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곳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속초문화원은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인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 지역문화를 국내 및 국외로 보급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



속초문화원 사이트(www.sokcho-culture.com)의 국문·영문판



“향토문화, 이제는 디지털이다”

전 명 찬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새로운 천년을 맞아 21세기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화두가 제기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정보화, 디지털혁명, 문화의 세기, 세계화 등이 그것. 이중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정의가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최고의 전략산업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 등으로 요약

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도 한결같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미지와 문화, 아이디어 같은 창조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화컨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의 한축을 구성하는 요소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 산하에 (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 대규모의 예산 지원, 인적자원의 양산, 관련제도의 정

비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도 수많은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이 논리적 근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현실화되었듯이, 문화적인 요소와 창의성에 기초한 문화상품 또는 정보상품을 일컫는 문화컨텐츠도 창의력과 아이디어, 문화적 감수성을 원천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표현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별한 문화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가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콘텐츠 개발에 풍부한 소재로서의 기능을 해야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컨텐츠가 만들어진다.

研鑽 통해 향토문화의 디지털화 모색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향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합류하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과 함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기초조사 연구(2000. 7~2001. 3)'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전국 각 시군구의 향토문화 표준분류체계 구축 및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제까지 뚜렷한 학문적인 연구성과가 없었다. 향후 향토문화의 디지털화 및 콘텐츠개발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연합회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토문화의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인적자원 배출을 위해 정문연과 공동으로 지난해(총4차, 169명 참가)부터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研鑽)'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6차(매회 2박3일)에 걸쳐 진행된 2001년도 연찬에는 전국에서 230여명이 참가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와 참가자와의 심층토론으로 진행되었다.(표참조)

강의는 ▲정부의 지방문화 육성책과 그 방향(최천식 문화부 전통지역문화과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내용체계와 활용방안(전택수 정문연 교수) ▲고문서의 내용과 정리의 실제-고문서실 탐방(안승준 정문연 전문위원) ▲지방문화의 연구방법론(이해준 공주대 교수) ▲향토문화연구의 실제와 그 성과(김민수 향토사학자) 외 다수의 정문연 교수들이 참여했다.

젊고 다양한 분야인재 참여 절실

2년에 걸친 연찬을 통해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참석자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지방문화원 관계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의 향토문화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형성과 관련기관(종사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향토문화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계, 박물관종사자 등 참가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교령이라는 지적도 많다. 물론 젊은 직장인이 3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참여층의 치우침과 함께 가장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이밖에 지역적 특성 및 향토문화의 현실성을 고려하는 주제선정, 연찬 장소를 참가자의 편리를 고려해 지방으로 분산 개최, 연합회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제기된다.

허창무 정문연 교수는 "이제까지 참가자를 연합회에서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연합회에서는 지방문화원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교육부 산하의 정문연은 지방의 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 등을 섭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면서 "참가자 모집의 이원화를 통해 참여층을 확대하자"고 했다.

향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토문화의 디지털컨텐츠는 특히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과 경제이론의 개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뒷받침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컨텐츠가 될 전망이다. 

〈연찬 참석자 분석〉

직업(직위)별 분류	문화원장	문화원 임원	문화원 직원	향토사가	공무원 교원 등	기타
2000년	14명	37명	23명	57명	4명	34명
2001명	33명	52명	33명	76명	10명	26명
직업(직위)별	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2000년	22명	42명	26명	8명	23명	48명
2001명	32명	52명	30명	29명	28명	59명

△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회에는 지난해 169명, 올해 230명이 참석했다

한국문화 특강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남북통합의 길 향토문화에 있다”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지난 9월 21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작년의 북한방문기를 주제로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특강을 했다. 이 회장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열쇠는 향토문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6회에 걸친 향토문화연구자 초청연찬 특강에는 이현재 전 국무총리, 박석무 전 학술진흥재단이사장, 정희경 청강학원이사장, 홍일식 전 고려대총장,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각각 초청됐다. 다음은 특강원고 중 필자가 북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중 일부이다(주)

이 수 홍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백두산 정상에서 만난 제복차림의 김양

“어데 김씨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같은 전주김씨입니다.” “죽보가 있는가?” “죽보는 일부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본(本)밖에 모릅니다” 북쪽에서 만난 사람중 본을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초대소 근무 전여사

황해도 고향에 부모가 있고 평양에는 공부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시골학교에서 추천되어 김일성대학 법학과에 재학중이라면서 딸보다 아들자랑이 많았다. 부모에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평양은 90%가 화장을 하고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공동묘지에 매장한다고 한다. 90%이상이 부모 제사를 모시고 조부모 이상도 기일에 성묘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양강도 민족문화보존회 박영태 실장

이번 여행에서 그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첫날 백두산 장군봉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향토문화를 하는 사람은 얼굴부터 달랐다.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수호하며 계도하는 직책인데 관광안내, 감자농장의 농사방법 등 백두산의 만물박사였다. 나는 곧 그와 친해지고 시종 동행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사상 덕택으로 민족문화연구에 대한 환경은 매우 좋으면서 앞으로 남북통일이 제대로 되려면 서로 전통문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유교문화가 기층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에서 접근하면 남북은 서로 이해하고 쉽게 마음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일성대 대학생 아들 둔 전여사

여행중 또 한번의 행운이 있었다. 초대소에서 3일째 밤이었다. 4명의 여인이 우리방에 찾아 왔다. 총지배인적인

전여사 일행이었다. 우리쪽은 민예총 부회장과 언론계 출신 2명 등 4명이었다. “이 방에 오면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 첫째 남쪽 국민들이 자기돈을 쓰면서 북쪽을 돕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미군이 왜 주둔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 “통일이 되었을 때 남쪽 국민들은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북쪽의 경제가 잘 되도록 진심으로 돕고 있다”고 했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쪽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통일후에도 주변 강대국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점은 김정일위원장이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밀폐되고 경직된 북쪽 사람들이 하루 빨리 눈을 뜨고 귀를 뚫어야 할 것이고 남쪽은 사회안정을 해치는 모순을 속히 정화해야만 진정한 남북화해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문화연구방법론

주체적 시각으로 지역문화 재정리 필요

지역문화 연구의 방향은 첫째 지역의 문화를 지역의 주체적 시각으로 재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기 돌출된 문화들을 상호 연결, 종합하는 안목의 개척이다. 셋째 '문화재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연구자'와 '문화향유층'을 바로 보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와 의식의 문제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역사, 지역문화 연구가 대체로 자료중심의 연구와 그 이해에 집중된 것이었다면, 이제 미래 사회의 지역문화연구는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무와 연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는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속에 지역문화의 정체



이 해 준 | 공주대 교수

성과 경쟁력의 문제이고 또한 지역문화의 자원화 즉 상품화라는 현대적 활용이 그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내용체계와 활용방안

문화컨텐츠는 '사회발전의 자본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컨텐츠는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재가 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해 표준분류체계 구축 ▲인류학 및 민속학 등 문화분석학적 연구에 기초해 각각의 세부항목 개발 ▲관련 전문학자의 내용집필 · 영상 음향처리를

통해 디지털화 및 검색체계 구축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분류체계의 주요내용은 제1편 삶의 터전 : 자연과 지리 제2편 삶의 내력 : 지방의 역사, 제3편 삶의 자취 : 문화유산, 제4편 삶의 주체 : 성씨와 인물, 제5편 삶의 틀(1) : 정치와 행정, 제6편 삶의 틀(2) : 경제와 산업, 제7편 삶의 내



전 택 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용 : 종교와 문화 제8편 삶의 방식 : 생활과 민속, 제9편 삶의 이야기 : 구비전승과 어문학으로 돼있다. 

향토사 연구의 실제와 그 성과

향토사 연구자 · 전문연구자 협력해야

향토사연구자들의 향토사연구 성과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여 문화정책이나 문화산업의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문연구자와 같이 기획된 연구과정을 도입하지 못한 태도로 인한 아집과 오류는 향토문화의 1차적 소생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

기시켰다. 전문연구자들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자신의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한 방법이다. 또한 향토문화의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는 것도 향토사가와 전문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토사연구자와 전문연구자간의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



김 민 수 | 향토사학자

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구성과를 인정해 줌으로써 향토문화연구의 극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박계현 기자 fire@kccf.or.kr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66).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실에 들어서면 독특한 책꽂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책꽂이에는 이 원장이 <동아일보> 문화부 재직시절에 쓴 기사를 모아둔 스크랩북이 꽂혀 있다. 36년간 문화의 언저리를 맴돌았다고 자신을 낮춰 소개하는 그는 서울대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후 동아일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언론인 출신이다.

“조선조 500년은 시인들이 지배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이 원장이 던진 첫 마디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통해 글 잘 짓는 사람이 관료가 돼 국가를 통치하고 나아가 역사를 지배했다는 것. 이 원장은 그들이 도덕국가라는 큰 목표를 두고 경제대국·정치대국·군사대국이 아닌, ‘문화정치’를 이념으로 삼았기에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도 격조 높은 문화대국으로서의 조선왕조 500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

이 원장이 조선왕조의 ‘문화정치’를 들먹이는 것은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반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신문뿐 아니라 월간지 <신동아>와 <여성동아>를 거친 이력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는 언제나 ‘글쟁이’로 통한다. 조선왕조가 그러했듯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지금 ‘글 잘 짓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셈.

“문화는 바꾸는게 아니라 따라가는것”

‘지방영웅’ 살려야 ‘지방문화’ 뜬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으로서 이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기자생활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 지방문화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 지역출신의 명망있는 문화계 원로들의 낙향을 권하고 싶단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병환으로 고향인 익산으로 낙향했을 때 익산 사람들이 동호회를 결성할 정도로 열광적이었고, 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이 눈에 띄게 달라졌던 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자시절 때였습니다. 한번은 故서정주 선생이 고향인 고창에 내려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곤 기쁜 마음에 대서특필했지요. 그런데 정작 기사가 나간 후 서정주 선생이 낙향을 안 하더라구요. 그건 명백한 약속위반이었습니다(웃음)”

이 원장의 ‘지방문화 살리기’는 여기사 멈추지 않는다. 충주의 우륵, 장성의 홍길동, 곡성의 심청, 고창의 신채호, 안동의 퇴계 등 지방의 영웅을 살리는 축제도 그 중의 하나. 하지만 이 축제를 위해서는 도지사, 군수 등 지방 행정책임자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한다. 책임자의 취향에 따라 지방문화의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다. 이 원장은 “212개의 지방문화원을 통해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쌓은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는 지방문화행사에 대한 컨설팅이다. ‘천년의 미소’란 타이틀 아래 진행되는 경주 엑스포가 그것인데, 이 행사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

램을 가지고 지속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 아이템을 연구·개발하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격조 높은 문화생활은 시일이 필요

이 원장은 문화를 변화시키기보다 수용하는 쪽을 원한다. 이 원장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문화의 범주에 낄 수 없었던 것들이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들은 모두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한 문화현상이므로 낯은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다. “나를 숙명론자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문화는 대중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화는 부단히 바뀌는 것이므로 대세를 따를 것을 스스로에게도 타이릅니다”

이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발단속에 대해 “머리하나 제 맘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라는 글을 썼던 김동길 박사의 칼럼을 기억한다. 실제로 그 자신이 66년을 살아보니 김 박사의 말이 맞더라. 청바지와 코카콜라의 유입은 공산주의 체제도 막지 못했고, 북한에서조차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시세에 ‘영합’ 할 수밖에.

하지만 이 원장은 “격조 높은 문화생활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며 “그 시행 착오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리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일이다”라고 강조한다.

‘-1 욕심’ 만 실천하면 세상이 편해져

이 원장은 시중에 출간되는 책은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독서량이 많은 편이

다. 최근엔 이순신의 내면 세계를 절묘하게 재조명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를 손에 잡고 있다. 김훈이 2001년 동인문학상 수상소감에서 “묘사문장을 다섯 장쯤 썼다가 ‘내다버려라’라는 단 한 문장으로 바꿔 고치곤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밝힌 인터뷰가 무척이나 마음이 와 닿았다고 한다. 그는 “모든 일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모두가 ‘마이너스 1욕심’만 실천하면 세상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원장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보니 문화관광부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또한 막중하더라. 조선시대의 ‘문화정치’를 늘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또 조선조의 문화는 소수 엘리트 계층인 양반이 독점하고 있었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도 소수였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도 문화가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는 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활짝 웃는다.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기자로 살겠다는 대답은 못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거지와 기자는 동격”이라며 “그 둘의 공통점은 더 좋은 다른 길 하라 해도 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생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면서 미소 짓는다.

그의 어깨 너머로 노랗게 빛바랜 신문 기사 스크랩북이 이종석 원장이 살아온 그동안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문**

‘오름’ 닮은 경기장, ‘올레’ 같은 진입로



국토 최남단, 감귤과 관광의 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질푸른 태평양과 수려한 한라산, 외부세계에 물들지 않은 섬만이 간직한 고유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는 한국 최대의 국제 관광지이다.

서귀포시는 2002년 서귀포 월드컵 행사를 수려한 자연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축제로 이끌어 제주를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반드시 가보고 싶은 동경의 섬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서귀포 월드컵 행사는 ‘관광제주’ PR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월드컵 축구는 세계 60억 인구의 최대 축제중의 하나이다. 개최 기간중 한국을 찾을 외국인만도 대략 3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기 실시간에 TV,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경기장 관람을 통해 축구 경기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더욱이 TV 등 전파매체들은 1개월여나 되는 대회기간 동안 경기만이 아니라 접해보지 못했던 개최지의 독특한 각종 문화이벤트, 청정한 자연속의 절경지를 가감없이 전 세계로 쏘아 보낼 것이다.

엄청난 경기장 건설비용과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겠지만, 아주 자연스레 관광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대회개최지의 이점에 착안, 관광과 문화와 환경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를 개념화한 경기장도 ‘관광지원’

완공되는 서귀포 월드컵 축구장은 제주를 예술적으로 압축한 또 하나의 ‘작은 제주도’이다. 1천1백25억원을 투입해 4만2천여석의 규모로 지어지는 2002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 형상화한 건축 예술작품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한 3백60여개의 기생화산인 오름과 오름의 분화구를 경기장 형태에 도입했다. 오름은 야트막한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으로 이뤄져 있다. 제주도의 안정성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보면 아주 매력적일 것이다. 경기장 주변인 관람석이 오름의 둘레라면, 그라운드도 그 분화구이다.

또한 제주의 전통가옥 진입로인 ‘올레’를 경기장 진입로에 끌어들었다.

월드컵 경기장 지붕형상도 전통 폐배인 ‘테우’와 그물을 건축설계에 도입했다. ‘테우’는 제주 특히 이 지역(법환동) 특산물인 자리돔을 잡는데 사용됐던 폐배이고, 폐배에서 사용하는 둥그렇고 커다란 그물들을 지붕설계에서 개념화했다. 둥그런 틀에 그물을 매달고, 틀의 각 마디의 테우의 가운데 세운 돛대에 줄로 매달도록 된 구조물이다.

경기장 건축물의 전체적 모습은 “순풍에 돛단배가 대망의 21세기에 5대양 6대주로 항진해 나가는 제주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고 있다.



김 동 훈
제주산업정보대학 겸임교수

이밖에도 바다와 섬, 그리고 한라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경기장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 여느 경기장에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경기장 자랑은 그라운드의 지하화(14m)이다. 제주도의 '3다(여자·돌·바람이 많다)'의 하나인 바람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이다.

제주문화 알리는 절호의 기회

서귀포시는 제주도내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등이 주관하고 있는 기존 문화예술행사를 월드컵과 연계하는 방안을 전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수 예술성 행사를 지양하고 대중성과 흥미성을 가미해 누구나 재미있게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아래 대회 기간중 현대 한국 화단의 대표적 천재화가 이중섭이 6.25 피란당시 거주했던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에 조성된 '이중섭 문화의 거리'에서 20일동안 '이중섭예술제'가 열린다. 이중섭은 여기에서 '서귀포시의 환상', '계와 어린이', '썬섬이 보이는 풍경' 등 명작을 남겼다. 향토문화 재

현 및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서귀포칠십리바다축제가 열려 어선 낚시나 수산물 할인 판매 등 관광객들이 제주 어촌체험을 즐기게 될 것이다. '서귀포 칠선녀축제'도 당초 개최연도를 조정, 짝수해인 2002년도에 열리도록 했다.

월드컵플라자나 월드컵기념종합예술제, 제주민속공연축제 등의 행사도 경기장과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칠십리 국제 걷기축제', '제주 유채꽃 큰 잔치', '제주국제 철인 3종경기' 등도 월드컵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참가단 및 경기장 방문 관람자들은 가장 제주다운 정취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제주 眞面目 세계 PR의 계기

제주도 관광은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인문 관광 보다는 자연에 바탕한 자연관광이 훨씬 매력적이다.

전문여행가들은 '세계 어디서도 접해볼 수 없는 매력 있는 곳'이 제주라고 극찬한다. '제주만한 땅덩이에 갖출 것 다 갖춘 곳'이 바로 제주이다. 산, 바다, 초원, 하천...등. 동서 길이

200km, 남북 50여 km 길이의 타원형 속에 신의 배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천혜의 신비스런 제주이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한라산으로 돼 있다. 중앙의 한라산 정상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바다와 한라산 사이의 광활한 초원 곳곳에 산재한 360여개의 야트막한 기생화산인 오름들. 공장지대가 거의 없는 입지조건을 반영 제주바다는 말 그대로 '청정바다'이다. 한라산은 2천여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식물원이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다양한 생선회는 아무리 즐겨 먹어도 오염에 의한 배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같은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제주관광은 1960년대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됐다. 그러나 충분한 직항노선의 부족, 세계의 주요 관광루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리한 여건 때문에 주변국 일본도의 국제관광객들만이 찾는 곳이 돼 오고 있다.

식물의 보고임을 추정하는 기록은 아득한 과거로 올라간다. 진(秦)의 시



월드컵 경기장 내부(왼쪽)와 서귀포의 주상절리대

공예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추정치조차 확립돼 있지 않고 있다. 무역통계 역시 여타 산업과 공예품과의 구별, 또는 수공예품과 기계제품의 구별 등이 확실치 않아 순수한 공예산업과 관련된 교역규모를 알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각 나라별로 자국이 정한 공예산업의 정의에 따라 작성된 수출액 규모는 1986년에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과소 추정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세계 공예품 교역은 선진국들

조달 여건,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제도 정비 등에서 모두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후진국들의 공예산업 시장은 열악한 제도적 환경 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선진국의 금융지원과 국제 기구의 지원 등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개도국에서 공예부문이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이 미약하며,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의 문제가 있다. 또한 비체계적인 생산계획이나 열악한 품질관리 등 생산의 문제와 함께 마케팅 활동과 전문성 결여 등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골동품의 3개 분야에 한정해 ITC가 '96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도국이 세계공예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81%이며, 평균적으로는 약 76%이었다. 이 분야의 세계수입시장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손꼽히고 있다. 그밖에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시 운송수단 등 인프라부족으로 활발한 수출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예품 중 인기 있는 품목들은 수예, 의류, 벽걸이 웅단, 깔개, 침대보, 벽걸이 제품, 테이블보 등이다.

세계적으로 공예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아직 국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의 비교나 종합적인 규모의 산출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공예상품의 국제적 유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국

공예상품의 해외수출 현황과 대안

총수출의 0.3% 못미쳐 상품 未분류 '걸림돌'

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공예상품 무역액은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수입액 중 절반이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한국의 공예시장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산 공예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 약 9백만 달러 수준이고, 그 이외의 나라는 그 수입액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들의 교역이 후진국들에 비해 활발한 것은 공예품 생산자들의 자원



황 동 열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초빙연구원

〈세계 주요국의 공예산업 현황〉 (1\$=120엔, 1,170원)

구 분	프랑스 (억프랑)	영 국 (백만파운드)	독 일 (백만마르크)	이탈리아 (리조)	일 본 (억엔)	한 국 (억원)
시장규모	8,370	5,656	8,500	180	3,288	파악불가
수 출 액	73	685	417	3.6	927	4,654 (\$397,810)
수 입 액	88	1,132	624	1.4	940	1,186 (\$101,342)
한 국 산 수 입 액	0.7216	파악불가	파악불가	0.0025	110	-

자료: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2000. 2, 문화관광부). 시장규모는 1999년 현재 추정치.

공예품의 개도국 수입 동향('92 ~ '96) (단위: 백만달러)

SITC	분 야	1992			1996			1992-1996 ²⁾	
		세계	개도국	비중 ¹⁾	세계	개도국	비중 ¹⁾	세계	개도국
65643	레이스 제품	13	3	23.1	8	4	50.0		
65891	벽걸이 융단	55	39	70.9	46	29	63.0		
6593	깔 개	134	101	75.4	149	121	81.2		
	합 계	202	143	70.8	203	154	75.9	1.4	2.8

자료: ITC's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trade in ARTISANAL

PRODUCTS International Trade Center, 1999.

주: 1) 세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개도국 비중.

2) 1992 ~ 1996년간 연평균 증가율

가들이 자국의 공예품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공예의 해외 수출과 판매 증진을 위한 인식과 다양한 방법의 공예산업진흥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공예상품의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예품 유통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사항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이기도 하다.

영국 공예산업의 규모는 연간 400만 파운드(7000억) 규모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약 2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영국 공예품판매는 내수 및 해외시장에서 매년 5%이상씩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에 10%는 해외판매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공예가의 16%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중 10%가 전시판매를 통해 25%의 매출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공예협의회에 소속된 1천8백여개의 공예업체에 6천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1998년에 총 9천2백만 달러어치의 공예품을 판매했고, 그 중 33%는 수출이나 외지 관광객을 통해 판매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 5년 사이에 약 14%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예산업체 중 50%이상이 최근에 개업했으며, 이중 66%는 지역에서 활동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공예품 생산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기모노, 염색, 직물 등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도자기(12.4%)와 칠기제품(9.4%)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74년 전통공예진흥법을 제정하고, 1975년 전통공예산업협회를 발족시켰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공예가인증제도, 재정지원과 포상제, 공예품 모니터링제, 인증마크, 연구촉진, 국제화, 다양한 진흥행사 개최 등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0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예 문화상품의 수출은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잡각류 공예품과 비금속공예품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목칠공예품 중 칠기공예품,

죽세초경 공예품 중 초경공예품, 신변장식품 중 머리장식품과 기타 신변장신구는 수출이 증가했다. 신변장식품이 전 수출품의 60%~8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모조장신구가 70% 이상을, 비금속공예품은 약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다.

공예산업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해 1996년 이후부터는 0.3%선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6년 이후부터는 1%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상품이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아주 미약하다.

공예품 수입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세부품목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감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갑각류공예품의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2%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칠 공예품이 13.3%, 죽세초경 공예품이 8.5%, 조화류가 7.9%씩 감소했다. 세부품목으로는 비금속공예품 중 식탁 및 가정용품과 사진틀의 수입감소폭이 크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아 총수입액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죽세품(11.3%), 초자공예품(15.2%), 신변장식품 중 머리장식품(2.9%)과 기타 신변장식품(3.7%), 기타 비금속공예품(1.1%)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공예산업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전통·전통공예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접목된 현대공예가 서로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 영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예산업에서 디자인 영역은 멀티미디어(multimedia)와 접목해 21세기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의 공예산업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술성과 시장성을 어떻게 조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공예산업의 독특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의 부족, 영세한 재무구조,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낙후한 디자인 개발능력, 마케팅전략의 부재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고유의 색채 감각,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 우아한 전통미를 살려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국내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예산업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해 1996년 이후부터는 0.3%선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6년 이후부터는 1%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말의 뜻을 고르시오

1. 아마 굳이 불을 밝히지 않아도 방 안이 그렇게 **우려했던** 것은, 장지문에 가득히 밀리어 비치는 바깥의 달빛 때문이었으리라. <최명희의 '혼불'에서>

- ① 형태가 약간 나타나 보일 정도로 희미하다.
- ② 기억이나 형상 따위가 긴가민가하여 또렷하지 아니하다.
- ③ 별로 흠잡을 데가 없이 무던하다.
- ④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

2. 영식이란 위인도 그렇게 **알심** 있는 사나이는 아닌 듯 싶었다. <한설야의 '탐'에서>

- ①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마음.
- ② 부러워하며 시샘하여 탐내는 마음.
- ③ 보기보다 야무진 힘.
- ④ 사물을 깨닫는 힘.

3. 이 없어 이내 **동곳을 빼고** 만다. <채만식의 '탁류'에서>

- ①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②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모자라서 포기하다.
- ③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다.
- ④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다.

4. 임이네의 **새된** 고함이 귀청을 찢듯 들려왔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 ① 굵고 거친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늘어놓다.
- ② 목소리나 소리가 높고 날카롭다.
- ③ 소리가 웅숭깊다.
- ④ 날카로운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여 몹시 듣기에 거북하다.

5. 마룟장 **태깅**은 보안 빛 대신 땃국에 찌들고 전 우중충한 빛깔이었고, 그 위엔 먼지가 부엌에 앉아 있었다. <이문구의 '관촌 수필'에서>

- ① 천이나 물건 따위가 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
- ② 모양과 빛깔.
- ③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 ④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6.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좌석에서 **파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 된 서슬엔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 ① 과연 정말로.
- ②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 ③ 마땅히 그러하게.
- ④ 틀림없이 꼭.

7.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흘칠** 듯하였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 ① 사람이나 물체 따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 ② 옷 따위가 몸을 친친 감듯 달라붙다.
- ③ 물체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기울어지며 흔들리다.
- ④ 물체가 바람 따위를 받아서 휘우듬하게 쏠리다.

㉠-기르를 '㉡-은하' ㉢-레해 '㉣-기르하' ㉤-기르(를)은을 '㉥-은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㊀-기르하' ㊁-기르하 '㊂-기르하' ㊃-기르하 '㊄-기르하' ㊅-기르하 '㊆-기르하' ㊇-기르하 '㊈-기르하' ㊉-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기르하' ㊱-기르하 '㊲-기르하' ㊳-기르하 '㊴-기르하' ㊵-기르하 '㊶-기르하' ㊷-기르하 '㊸-기르하' ㊹-기르하 '㊺-기르하' ㊻-기르하 '㊼-기르하' ㊽-기르하 '㊾-기르하' ㊿-기르하

<출처 : 한글날 특집호 '새국어소식' (국립국어연구원 刊)>



외계인도 좋아하는 지평선

제3회 김제지평선축제 중 허수아비경연대회에 출품된 '외계인도 좋아하는 지평선'이라는 이름의 허수아비. 김제시가 쌀을 주요한 문화적 테마로 삼아 관광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제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폐품을 소재로 허수아비를 제작한 김제시 원평초등학교 4학년 이주림 어린이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김제지평선축제 중 전통민속행사 3개 종목을 후원했다.

컨설팅

문화학교 경쟁력의 원천은 '지역 특성화'

김 두 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팀장

지난 9월 19일 경북 경산시 경산문화원(원장 이원희)에서 한국문화학교에 대한 1차 컨설팅이 개최됐다. 이 컨설팅에는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의 이중한 추진위원장, 이종인 상임위원, 안진수·이혜경 위원,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컨설턴트로, 문화학교측의 이호균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외 42명이 참석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총괄팀 양한성씨 등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한국문화학교는 모두 307개교로 구성돼 있다. 문화원 148개교, 박물관 26개교, 도서관 58개교, 기타 여섯 회관 등에 75개교가 설립돼 있다. 2000년 현재, 전

통문화·예술문화·어학·음악·생활 취미 등과 관련된 3천6백86개 강좌에 2십5만2천여 명이 수료했다.

199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설학원이나 쇼핑센터, 지역 농협 등에서도 문화강좌를 개설해 경쟁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에서는 문화학교의 차별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집중됐다.

이호균 사무국장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학교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질문에 컨설턴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의 문화학교마다 '자기 것'을 만들자"라며 문화학교의 특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중한 위원장은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에서 지역 문화학교간 교류 시스템을 만들려면 먼저 교류에 따른 보 조금 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문화학교가 소재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종인 상임위원과 이혜경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 지역에서 그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자매결연에 앞서 충실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양문화원의 박경숙 교학부장은 "농촌의 경우 노인층이 많아서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이중한 위원장은 "일방적이고 1차원적인 교육보다 창조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며 "세계의 문화교육은 보고 듣는 것에서 만지고, 느끼고, 창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에 관해 기초단계, 향상단계, 창조단계 등 3단계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총 3시간에 걸쳐 실무자 교육, 자원봉사자제도 운영, 가족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에 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컨설팅이 끝난 후 경산문화원에서 마련한 만찬에서도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문화학교 담당자들의 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한편 추진위는 한국문화학교를 대상으로 10월 11일 전남 목포시의 목포시립도서관에서 2차 컨설팅을, 10월 23일에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차 컨설팅을 개최했다.



행사 · 단체 지원

벽골제사 · 쌍용놀이 · 입석줄다리기등 흥겨운 한마당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북 김제일원에서 '제3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열렸다. 문화관광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전국농악경연대회' '쌀놀이와 떠나는 논길여행' '황금벌판 우마차여행' '허수아비 전시회' '세계쌀음식 품평회' 등 모두 60여 가지의 다양한 내용으로 치러졌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 중 전통민속행사인 벽골제사 · 쌍용놀이 · 입석줄다리기에 후원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7월 13일 김제시청의 요청으로 지평선축제의 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전야제 행사에서 길놀이 퍼레이드와 록콘서트, 불꽃놀이 등이 화려하게 펼쳐져 수많은 인파가 환호성을 지르며 도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그러나 길놀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농민들이 도무지 웃지를 않아 사진 촬영에 애를 먹었는데, 그 경직된 얼굴들에서 지난 세월 우리가 겪은 삶의 억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억지일까?

벽골제사와 쌍용놀이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에 벽골제 현장에서 벽골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제사는 유식

고축(儒式告祝)의 간단한 의례로 임수환 김제유도회 상임위원이 집전하고, 김제문화원(원장 김병학)이 주관한 행사였다. 대략 30분간 짧은 제사였지만 참석자 모두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서 11시부터 1시간 동안 쌍용놀이가 재현됐다. 쌍용놀이는 벽골제를 만드는 과정에 청룡과 백룡이 싸우다가 백룡이 패하고, 청룡의 제물을 자칭한 단야 아가씨가 청룡에게 벽골제의 영원한 보호와 사랑하는 원덕량의 성공을 빌면서 회생된다는 내용이다.

용의 길이는 50m 정도, 두 마리 용이 태극을 그리며 싸우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또 당시 벽골제를 만드는 광경도 시연됐는데, 두 가지 재현 장면 모두 김제 덕암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1백여 명이 출연했다.

다음 날 있었던 입석줄다리기는 줄다리기를 마치고 돌솥대에 감아놓는 놀이로 특히 한반도 서남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다. 이 행사도 본 추진위에서

지원했으나 참관하지는 못해 아쉬웠다.

전북조각회 회원전도 열려

한편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김제시 벽골제 농기구 박물관 내 2층 야외전시실에서는 제18회 전북조각회(회장 황순례)의 회원전이 열리고 있어 쌍용놀이가 끝난 후 관람했다.

이 전시회는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후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활성화 사업중 지역내 교류 행사의 하나다.



전북조각회는 1985년 전주시를 중심으로 창립된 지역예술단체로서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가진 이래, 매년 회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전과 초대전, 정기전 등을 개최해 오고 있는 전북 조각계의 중견 단체이다.

이번 조각회는 모두 42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김제지평선축제 현장에서 열린 만큼 한국의 정서와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



사이버 이벤트 문화도시 꿈꾸기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생생두레코 퓨전 게임'

추진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지역문화의 해' 공식 홈페이지(<http://region2001.org>)에서 실시한 가상문화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문화도시 꿈꾸기' 공모 심사결과를 10월 31일 발표했다.

총 21개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기초시나리오 형태로 접수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문화전문가들과 인터넷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결과 모두 9개 작품이 선정됐다.

응모작의 심사에서 우선시된 선정 기준은 ① 멀티미디어를 구현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아이디어, ② 등장인물이나 상황설정이 지역문화의 현안 과제를 담은 내용, ③ 희망사항과 방해요소가 모두 고려돼 게임과 같은 극적 긴장이 있는 구성 등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응모작들이 적어 심사위원회는 부득이하게 당초 기획과는 달리 선정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한 심사위원은 "문화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고 넓어서 고민이 많았다. 가령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소재로 한 '다세대주택의 문화만들기'의 경우는 예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문화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입선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인정할 때는 좋은 소재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문화의 해'가 지향하는 문화 개념, 즉 후자의 입장에서 응모작들을 평가하였다"며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유형, 즉 영화나 게임 등으로 구현될 경우 얼마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관해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12월 하순경에 치러질 예정인 '지역문화의 해' 폐막식에서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 목	성 명	분 야	소 속
생생두레코 Fusion Game	박성희	문화도시 건설	최우수상
SimFest - 최고의 축제를 만들자	김경아	축제기획	우수상
삶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이은호	지역문화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우수상
붓집메고 떠나는 축제의 금수강산	조대기	지역문화 네트워크	우수상
Another nature Pohang city	차재훈	문화도시 건설	우수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상 공연무대	김용운	지역문화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입선
세계귀신축제	염명하	축제기획	입선
다세대주택의 문화만들기	김아름	문화도시 건설	입선
인천문화상록작전	황금실	문화도시 건설	입선

사이버 이벤트

지역문화 선도 웹사이트 추천 공모 심사결과

‘경남문화탐방’ 등 10개 우수 홈페이지 선정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사이버 이벤트 중 ‘지역문화 선도 웹사이트 추천 공모’가 9월 30일로 마감됐다. 모두 38명의 네티즌이 총 45건의 지역문화 소개 웹사이트를 추천했고, 그 가운데 10개의 홈페이지가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됐다.

추진위의 박인배·안이영노 추진위원과 그외 인터넷 전문가 3명 등 모두 5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10월 15일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선정 기준은 ① 심사 당시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② 지역 문화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 주제인지 여부, ③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심층적인 내용구성으로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④ 고정 방문자들의 확보 정도, ⑤ 상업성 여부(상업적 사이트는 가급적 배제) 등이었다.

동점일 경우는 ‘지역문화의 해’의 취지가 주민이 스스로 꾸며가는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있으므로 개인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추진위는 위 10명의 네티즌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고, ‘2001, 지역문화의 해’ 공식 웹사이트에 선정된 홈페이지를 소개해 많은 이들에게 지역문화를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교류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선정된 10개 사이트의 제목과 홈페이지 주소

- | | |
|---|-----------|
| ▶강동욱 기자의 경남문화탐방(http://kdo.jinju.or.kr/) | - 김은아씨 추천 |
| ▶의령예술촌(http://user.chollian.net/~corma20) | - 이계수씨 추천 |
| ▶해남문화(http://haenamculture.pe.kr/) | - 정운섭씨 추천 |
| ▶다운재(http://www.ulsan21.com) | - 이애정씨 추천 |
| ▶문화통신(http://www.munhwatongsin.co.kr/) | - 이정오씨 추천 |
| ▶사랑방 안동(http://sarangbang.andongnet.com/) | - 홍기현씨 추천 |
| ▶부산환경운동연합(http://pusan.kfem.or.kr/) | - 전현성씨 추천 |
| ▶전북웹진 아이(http://ai.co.kr/) | - 장보림씨 추천 |
| ▶공주이야기(http://kongjuw2.kongjue.ac.kr/~kongju/) | - 김성용씨 추천 |
| ▶소금창고(http://www.sogum1.net) | - 한문교씨 추천 |

네티즌의 소리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에는 어떤 글들이?

2001, 지역문화의 해’ 공식 홈페이지(<http://region2001.org>)는 지난 1월 말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메뉴를 통해 네티즌들의 온라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region2001.org에는 <뉴스클리핑>이나 <보도자료>, <사무국통신>, <지원사업결과 보고>, <공개자료실>처럼 지역문화예술계의 뉴스나 ‘지역문화의 해’ 사업을 홍보하는 메뉴도 있고,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이나 <대도시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이달의 문화현장>, <한국문화공간 안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해 놓은 곳도 있다.

한편 네티즌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슈 포럼>과 <자유게시판> 등도 있어 온라인상에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개인들이 지역문화 홍보와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건수는 많지 않지만, 깊이있는 의견들이 많아 문화정책 관련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게시물들을 살펴 보겠다.

문화행정에 대한 따끔한 질타 많아

주로 지역문화행사에 관한 홍보와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자유게시판>에는 문화행정에 대한 따끔한 질타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146번 게시물을 작성한 오석호씨는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의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자택 건축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알려왔고, 111번을 작성한 유미희씨와 186번의 박종화씨는 각각 제주섬문화축제와 여주도자기축제에서 느낀 행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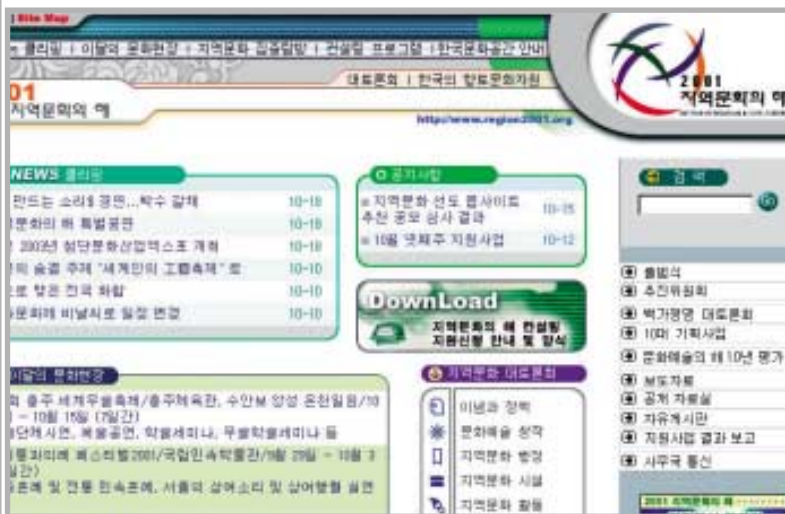
물론 위의 문제들은 ‘지역문화의 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문화사업 내지 문화행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문화관련 고충처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무국통신>의 45번 게시물을 작성한 허철희씨는 문화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께 격려의 글을 보내 사무국 직원의 기운을 북돋아 줬다.

톡톡튀는 제안 올라오기도

이슈포럼은 네티즌들의 토론이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이 오고 가는 게시판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34번 글을 올린 황보경씨는 “오늘날의 지역축제가 신명을 잃었음”을 지적하며 “축제의 본질을 되찾자” 주장을 했고, 46번 게시물을 작성한 경남 고성군 의회의 최현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결여,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지역 문화예술단체장들의 독선, 효율적인 예산과 기구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51번 게시물을 쓴 호성민씨는 대도시 아파트촌에 문화의 향기가 퍼지지 못함을 아쉬워 하며 “아파트 단지 안의 노인 정을 조그만 문화센터로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밖에도 많은 주장과 제안들을 내놓아 지역문화 사업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네티즌 구재서씨가 작성한 자유게시판 192번 글로써 사무국 김두진 팀장이 발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01, 지역문화의 해'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신 분은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www.culture2001.org)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으로 11월 15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고유한 우리 문화 찾아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다”라는 말로서 우리 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삼아왔다. 즉 우리의 고유한 문화, 남과 다른 우리의 문화를 찾고 육성하고 보여주어, 외국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그런데 요즘 동아시아를 열광케 하는 ‘한류(韓流)’는 우리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것이 아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일제시대에 뒤이어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강요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옛문화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찾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강한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놓친 것이 있다.

다양성, 개방성, 창조성은 어디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에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 ‘남의 문화’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게 됐다. 문화의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고, 다양한 문화들을 즐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끔 눈에 띈다. 다양성의 부족은 창조성의 결핍을 낳는다. 왜 한국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는가? 통일신라와 고려가 문화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문과 예술은 비판과 창조가 기본 정신이다. 예전의 것을 비판하고, 새로

서는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

지난 세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편으로는 학문과 예술을 사상은 쟁 내지는 음란성 논쟁으로 몰고 가는 구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예술도 학문도 발전이 없다. 지금도 공연예술이나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자의반 타의반 가위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형법의 대상이 된다.

헌법에는 문화와 관련된 인간의 네 가지 기본권이 있다. 출판·언론·사상·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문화와 관련된 위의 네 가지 자유가 없

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산 지원한다고 예술이 살아나겠는가? 예술 행사는 치를 수 있을지언정, 예술의 본질을 살리지는 못한다.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는 국민성과 사회 분위기를 길러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그래야 창의력 넘치는 기획들이 펼쳐질 것 아닌가!

현재의 행·재정적 지원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은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다른 행정부서들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뒀야 한다. 사회의 개방성과 창조성, 다른 것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 내는 발랄함은 예산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 활성화, 예산지원만이 능사인가?

운 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학문과 예술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예전의 사조를 비판하며 새 흐름을 창조하고 변화를 즐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즐기는 다른 문화라고 해봤자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주류다. 이러한 일방향성은 창조력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창조력의 빈곤은 모델로 삼은 문화에 더욱 종속되게끔 한다. 문화제국주의와 문화식민지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것’ ‘우리의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것’ ‘남의 것’ ‘새로운 것’을 즐기려는 마인드가 부족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늘 익숙한 자기 것만 좋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

탐 방

10월 29~31일 전북 탐방 '문화활성화' 논의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전남도청·한국문화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부안·정읍·전주 등지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문화활동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첫날에는 부안문화예술회관에서 부안군·군산시·김제시·순창군·고창군 등 5개 시군 대표가 모여 토론회를 하고 부안읍내와 격포 채석강 등지를 둘러 봤다.

이튿날에는 정읍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겨 정읍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임실군 등 5개 시군의 발표자들의

열띤 주제발표를 경청했고, 오후에는 황토현 전적지와 벽골제, 금산사 등을 탐방했다.

셋째날에는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시군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했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견학하는 것으로 3일간의 탐방대화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① 일관된 문화정책의 중요성 ②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교육의 역할 ③ 지역성과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관광상품화하고 문화상징화하는 전략 ④ 지역문화공간의 성공운영을 위한 대안 등의 주제가 주요 토론대상이 됐다.



채석강



위도따배놀이



김제입석줄다리기



갑오동학혁명 유적지



금산사비록전

박형진 원주문화원장등 5명 문화훈장 수훈

박 원장 '옥관' ... 강명보 · 김병학 · 민영근 · 장수봉 원장 '화관'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올해 처럼 5명이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문화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유광열 前이천문화원장(현 해강도자미술관장)까지 합치면 지방문화원 출신 인사 6명이 한해에 문화훈장을 받은 셈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34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진 원주문화원장은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강명보 광주북구문화원장 · 김병학 김제문화원장 · 민영근 당진문화원장 · 장수봉 충주문화원장 등 4명에게는 화관 문화훈장이 주어졌다. 78~90년도 이천문화원장을 지낸 유광열 해강도자미술관장은 옥관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제3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

로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 등 6명을 선정하고, 20~30대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시인 나희덕씨 등 8명에게 수여했다. 이번 서훈대상자와 수상자는 전국의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전문잡지, 지자체, 각 대학, 신문 및 인터넷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 박형진 원주문화원장이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훈장 옥관을 수여받고 있다.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문화훈장 서훈자들.

음관

박형진 원주문화원장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헌'

원주 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지역민 예술 활동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 공연 · 전시 및 지역문화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원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치악문화제와 원주영원산성대첩제를 비롯 충효교실 · 노인교실 · 주부한문교실등을 개최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문 · 서예 · 한국화 · 장교 · 중국어 · 영어 · 생활도예 · 유화 등의 문화학교 강좌를 개설해 지난해 1백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출판물로 향토문화유적관련서와 원주열 제5~10호, 치악문화62~64호를 발간했다. 원사 신축 및 시설확충에 대한 공로가 높으며 국경일과 설 · 추석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문화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월 평균 이용자수가 4천7백명에 이른다. 문화원장이 직접 퇴직



화관

강명보 광주북구문화원장

'용전들노래' 등 발굴에 힘써

사재를 들여 문화원 운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의 유명 학자와 예술인을 문화원의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지역문화 창달에 공헌했다. 무드리 어원 발굴을 비롯 용전들노래 · 무등문화발굴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 문화예술실기 강좌를 비롯 무드리 국악경연대회 · 푸른음악회 · 우리문화한아름교육 등을 개최했다. 광주의 명소인 소쇄원을 소쇄화하는데도 성공했다. 특히, '마을글방훈장'이란 사회교육지도요원 교육을 벌여 건전한 사회 문화 창달에 기여했으며 판소리 · 가야금 · 문인화 · 서예 · 사진 · 풍물 · 단전 호흡 · 향토문화 등의 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의 용전들노래를 발굴해 제1회 광주광역시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6백80명의 회원 확보. 51세.



화관

김병학 김제문화원장

향토사료 발굴 · 정리에 업적 높아

오랜기간 김제문화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대화의 물결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향토사료의 발굴과 정리에 큰 업적을 쌓았다. 지난 87년 부터 향토사료발굴 및 마을유래 조사를 벌여 '내고장의 얼' '정산문화' '내고장의 옛이름' '내고장의 전통민속' '금만의 유적' '벽골의 충효유적' '해학유서' '씨족정착사' '조선환여승람(김제편)' '벼농사와 벽골제' 등 수많은 서적을 묶어냈다. 오랜 동안의 준비를 거쳐 김제 시사와 군사도 발간하는 공적을 남겼다. 특히,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교양강좌를 비롯 미술 · 서예 · 여성 노래마당 · 한문등의 강좌를 통해 4천6백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공로가 크다. 지난 70년에 향토문화유공대상 감사패를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향토문화유공 대상을 수상했다. 71세.



수훈 · 수상자 명단

문화훈장 금관문화훈장(4명) 김천홍(궁중무용가), 장우성(월전 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최영희(문화재위원장),故김수영(시인) / 은관문화훈장(8명) 권영우(예술원 회원), 신응식(필명:신경림 · 시인), 유종호(예술원 회원), 이지관(전 동국대 총장), 최일남(소설가),故박용철(시인),故박태현(작가),故홍연택(지휘자) / 보관문화훈장(8명) 강숙자(예명:강유정 · 연출가), 권오일(극단 성좌 대표), 윤형두(범우사 대표), 이성천(예술원회원), 이우석(동아수출공사 대표이사), 임원식(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정철호(지휘자),故김종래(만화가) / 옥관문화훈장(8명) 권성덕(연극인), 박형진(원주문화원장), 송대관(대중가수), 유광열(해강도자미술관장), 장석웅(건축사), 주남철(문화재위원), 하춘화(대중가수), 마에다켄지(영화감독) / 화관문화훈장(6명) 강명보(광주북구문화원장), 김병학(김제문화원장), 민영근(당진문화원장), 장수봉(충주문화원장), 황용주(국악인),故문호근(오페라 연출가)

제33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 <문화>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장), <문학>이문구(소설가), <미술>정문규(화가), <음악>이규도(성악가), <연극무용>김의경(극작가), <대중예술>고우영(만화가)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대상자 <문학>나희덕(시인), <미술>허진(화가), <음악>이신우(작곡가), <전통예술>김용우(국악인), <연극>박명성(공연기획가), <무용>이해준(현대무용가), <영화>곽경택(영화감독), <대중예술>안재욱(가수)

화관 민영근 당진문화원장

문화강좌 · 행사 개발에 기여

당진문화원 · 문화의 집 신축을 비롯해 문화강좌 · 문화행사 개발에 힘썼다. 또 당진의 고유문화 보존과 전승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했다. 충장공 남이홍장군 숭모식을 남이홍장군문화제로 격상시켰으며 소들문화축제를 발굴해 99년에 제1회 행사를 가졌다. 이밖에 대호지 4.4독립만세 운동 기념 학생백일장을 비롯 충남도내 문화원가족 세미나, 문화유적지 순례, '96 문학의 해 기념 심혼의 달 기념 특별기획, 2000 해님돌이 축제, 남북통일기원 국민화합 기지시줄다리기, 먼천진달래 민속축제 등을 개최했다. 특히, 중국문화예술교류사업을 비롯 시애틀 셋별 전통예술단 초청 공연, 중국 심양 설화 소년예술단 초청 공연, 일본 문화 비교 탐방, '日本 唐津(쿤치)' 전시회 등 해외문화 교류에도 힘썼다. 47세.



화관 장수봉 충주문화원장

전문인력 확보 · 시설 운용에 업적

단급대공원내 위치한 충주문화원을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문화강좌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했다. 충주의 대표적 인물인 김생을 추모하는 전국서예대전을 지난 95년부터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는 한편 충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분야 30명과 서예분야 20명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써 이들로 하여금 신록순화관광열차 관광객연주회 · 탁본실습 · 가훈서주기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문화원사내 구내 매점을 직영해 발생하는 수입금 중 일부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 회원 관리 규정을 만들어 1인 1회원 추천 · 영입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매월 정회원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함으로써 모든 문화원의 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회원수는 3백24명. 58세



강원도 '하평 답교놀이' 대통령상 수상

제8회 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엔 경북 '일월이청청' · 전북 '호남우도김제농악'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강원도 강릉 사천 지역의 민속놀이인 '하평 답교놀이'가 한국 최대의 민속예술 경연의 장인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음력 2월 초엿새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다리밟기와 햇불싸움 등의 놀이를 통해 그 해의 풍년을 기원했다는 강원도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의 종합 최우수상 차지는 80명의 팀 참가자 모두가 그 동안 일심단결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었다. 이 팀은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으면서 5백만 원의 상금과 3백만 원의 전승보존금을 받았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이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도의 20개 팀과 5개 시연단체 등 모두 1천 4백여

명의 출연자를 비롯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 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사무총장 · 전국 지방문화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전통민속향연의 자리를 빛냈다.

다음은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심사결정 내용.

△종합최우수상1팀(대통령상)=강원도 강릉 사천 '하평답교놀이' (상금 5백만원, 전승보존금 3백만원), △종합우수상1팀(국무총리상)=경기도 '용구재 이무기제' (상금 3백50만원, 전승보존금 2백50만원), △우수상5팀<문화관광부장관상>=충남 '지와바지 두레놀이' · 부산 '동래 한라춤' · 대구 '가루뱅이 농악' · 경남 '진주 오펁대' · 전남 '청산도 멸치취리 배소리' (상금 각2백만원, 전승보존금 각1백50만원), △공로상3팀<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경북 '영천 곶나무 싸움', <한

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전북 '금과 모정 돌소리', <KBS상>=서울 '수표교 다리밟기' (상금 각 1백10만원, 전승보존금 각 1백50만원), △장려상2팀<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충북 '청주 농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대전 '평촌 지경다지기놀이' (상금 각 1백10만원, 전승보존금 각 1백50만원), △노력상8팀<경상북도지사상>=인천 '서곶 자염 일노래' · 황해 '만수대타극' · 광주 '쌍촌 우도농악' · 평남 '평양 검무' · 울산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현' · 평북 '영변 성황대제' · 제주 '배 만드는 소리' · 함남 '돈돌놀이' (상금 각 1백만원), △입장상1팀<영주시장상>=제주 '배 만드는 소리' (상금1백만원), △지도상1명<영주시장상>=충남 송건호씨 (상금1백만원), △연기상1명<영주시장상>=대전 유동식씨(상금 1백만원).

이에 앞서 16일에 열린 '제8회 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16개 시·도 대표 청소년 7백30여명이 참가해 그간 학교에서 연마한 전통 놀이로 경연을 벌였다. 다음은 '제8회 청소년민



'제8회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은 전북 김제덕암정보고의 '호남우도 김제농악' (왼쪽)과 경북포항정보여고의 '일월이청청'

속예술제' 시상결과, △대상2팀<문화관광부장관상>=경북 포항정보여고 '월월이청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전북 김제덕암정보고 '호남우도김제농악' (상금 각 3백만원, 전수장학금 각 2백50만원), △금상1팀<경상북도지사상>=경기 광주 종합고 '광지원풍물놀이' (상금 2백만원, 전수장학금 2백50만원), △은상2팀<영주시장상>=경남 철성중 '고성 오광대',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장상>=부산 동신관광정보고 '수영 농청놀이' (상금 각 1백50만원, 전수장학금 각 2백만원), △동상4팀<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광주 대촌중 '우도 농악' · 대구 서부공업고 '날뽕복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상>=강원 강릉농공고 '강릉입암농악' · 충북 진천농공고 '생거진천상산전통농악' (상금 각 1백만원, 전수장학금 각 2백만원), △아리랑상7팀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서울 성덕여자상업고 '창작 사물놀이' · 인천 박문여중 '은율탈춤' · 대전 새일고 '웃다리농악' · 울산 현대정보과학고 '등거리 농악' · 충남 부여정보고 '부여두레풍장' · 전남 목포 영흥중 '진도복춤' · 제주 고산상업고 '칠성제굿놀이' (상금 각 1백만원, 전수장학금 각 1백50만원).

대통령상 받은 '하평 답교놀이'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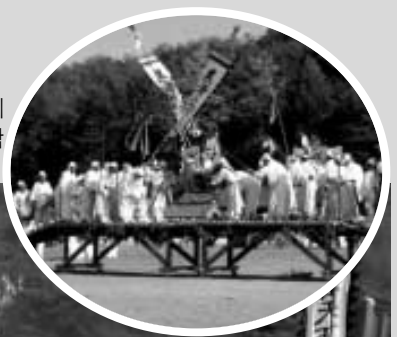
음력2월 초엿새 다리굿 · 돌싸움 · 햇불싸움으로 풍년 기원

강릉시 사천면 하평리 진리교에서는 매년 쯔상날 풍속으로 다리밟기, 햇불놀이를 행한다.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쯔상날이면 낮부터 마을사람들이 모여 각 가정의 가족수만큼 햇불을 준비한다. 달이 뜨는 시각에 온 마을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진리 다리에 모여 다리밟기, 햇불놀이를 한다. 음력 2월 초엿새를 강릉에서는 쯔상날(쯔생이날)이라 하는데 쯔생이는 묘성(昴星)으로 이날 초저녁(저녁 6시~7시) 사이에 달이 떠오르면 달과 쯔생이별과의 거리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강릉에서는 쯔상날에 마을마다 다리굿, 다리밟기, 쇠절금, 돌싸움, 햇불싸움 등의 놀이가 행해졌다.

쯔생이날 저녁에 다리를 중심으로 하평과 진리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두 마

을은 진리교에서 쯔생이날 풍년 기원 의식인 다리굿 · 다리밟기 · 돌싸움 · 햇불싸움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승부를 겨룬다. 이 승부로써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는데 이것이 '하평 답교놀이' 다.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종합최우수상 수상작
강릉 사천 '하평답교놀이'



국무총리상 받은 '용구재 이무기제' 는?

말머리·사슴뿔·뱀 몸형상 이무기로제올려

이무기제는 고양군 포면 대화리 개간마을(지금의 내촌)에서 행하던 마을 제사다. 용구재라는 지명은 전설에 의하면 용이 되려고 도를 닦던 지네가 물에서 천년, 돌에서 천년, 흙에서 천년, 도합 삼천년을 도를 닦아야 하는데 나머지 흙에서 천년을 3일 남기고 인간의 부정으로 인해 용이 못되어 이무기로 변해 마을을 괴롭혔다는 전설이 있다. 농경지는 물론, 갖은 질병과 마을에 괴변이 일어나기에 '용구재'라는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용구제는 먼저 제일(祭日)이 결정되면 마을 전체에서는 금기하며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잡인의 출입을 금하며 제일이 될 때까지 준비에 들어가 각기 다른 5명이 밤에 이무기를 만든다.

말의 머리·사슴뿔·뱀의 몸 형상인데 재료는 대나무로 하고 걸은 섬겨

적으로 한다. 만들어진 이무기를 용구재에다 당을 설치하고 안치한 후 제관이 모여 제를 지낸다. 이무기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며 이무기와 제물을 들고 마을의 큰 길을 돌며 춤을 춘다. 이무기를 장광틀에 얹어서 억군들이 매고 장광틀 위에는 새해에 흥액이 있는 사람을 태우고 용구재와 썩은 새를 불에 태우면 넘어가며 이무기를 맞아 돌며 논다. 이후 마을 사람들과 아녀자들 모두가 나와서 장광틀에 올려놓은 이무기를 간구제(지금의 김서부락)로 옮겨 모셔 놓는다. 이무기를 안치하고 있으면 황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이무기를 가져가 항해가 위험한 곳에 띄워 보낸다. 이무기 출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는다.

우수상① 부산 '동래 한량춤'

농기 세워 '풍년' 기원

두레가 끝나면 논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해 수고로움을 감사하는 뜻으로 대접하게 된다. 이를 연극적 연회방식으로 노는 놀이가 바로 '지와자비 두레놀이'다. 두레 놀이가 시작될 때는 마을 앞 정자나무가 있는 쉼터에 모두 모여 농기를 세워 놓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고사를 지낸다.

우수상② 부산 '동래 한량춤'

양반들의 멋스러운 춤사위

한량이란 과거에 오르지 못한 호반이나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 한량들이 어울려서 놀이판을 벌이고 풍류를 즐기는 현장에서 뿔뚝 솟아 있는 '한량춤'이라한다. 동래한량춤은 남성무의 여유로움과 넉넉한 품격을 지니고 동작이 크고 활발하며 춤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입장과 권주가·원으로 한량춤·군무·홀춤·대무·쌍쌍춤·성부놀이·잔끼춤·홍풀이·인사와 퇴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수상③ 대구 '가루뱅이 농악'

풍요와 무병장수 기원

가루뱅이 농악은 정월대보름에 동네 수호신을 모시던 당산목에 당산제를 올리고 집집마다 돌며 액막이와 지신 밟기를 하고 동네 마당에 모여 흥겨운 팽과리 가락에 어우러져 신명나게 농악판을 벌인다.가루뱅이 농악의 연행과정은 길굿·인사굿·물밀굿·연풍굿·싸움굿·쌍진풀이·길상풀이·허허굿·뽕벽구놀음(사사꼭지)·굿거

경기도 용구재 '이무기제'



리·오방진굿·놀이마당·진풀이(덕석말이)로 구성된다.

우수상④ 경남 '진주 오광대'

사회 고발로 좋은 세상 희구

진주 오광대 탈놀음은 다섯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앞의 두마당은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이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마련하고 뒤의 세 마당은 잘못된 사회(신분문제), 종교(신앙문제), 가정(여성문제)의 삶을 고발해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줄거리다.

우수상⑤ 전남 '멸치취리 배소리'

'협동심' 발휘하는 소리

옛부터 파시(波市)로 유명한 청산도 읍리마을 천장연안에서만 성행하던 멸치잡이에 동원되는 인원은 보통 30여 명으로 노를 짓고 그물을 당길 때마다 많은 힘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고됨과 피로를 달래고 보다 쉽게 협동심을 발휘하기 위해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멸치취리 배소리'다. 이 소리에는 어부들의 애절하고 구성진 가락이 깃들여진 독특한 남도의 소리가 담겨져 있으며 이 멸치잡이는 풍어기원제·멸치잡이·풍어뒷풀이 등 3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받은 '청주농악'은?

오방진굿·법고놀이·사성놀이로 재능 부려

충북의 민속 오락으로 대표적인 것은 농악이다. 이 농악은 고대 전쟁때 쓰는 진군악의 속전도 있으나 농사철에 농부들의 노고를 덜고



작업의 능률을 위한 오락적 수단으로 발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속적 행사에 농악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활용된다. 농악은 각지역마다 독특한 가락과 움직임 형태를 간직해 왔으나 지방교류가 활발해 집에 따라 점차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청주농악은 전래된 충청도 농악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계승돼 온 청주 농악은 50여명이 팽과리·징·장고·북 등 타악기와 상모 12두발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청주농악의 판굿놀이는 태평소를 불고 자드래기, 철새가락을 치는데 태극기 모양을 만들고, 나선형으로 돌아감은 오방진(망석말이)굿, 원자를 되돌려 풀면서 한패씩 안으로 돌아감은 꽃봉우리굿, 열지어 늘어서서 앞뒤로 발을 맞춰 움직이는 좌우치기 법고놀이와 삼성, 십자, 사성놀이 모양을 만들며 재능을 부리는 것이다.

새조시놀이는 두줄로 만들다가 네줄로 만들어 새걸음·오리걸음으로 지그재그 형식을 만들어 신명나는 걸음놀이·채상놀이(열두발, 설장고)·갈지자놀이 등 12여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다. **문**



부산 '동래 한랑춤'



대구 '가루뱅이 농악'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사** 람과 장승이 더불어 사는 곳’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서울서 시외버스를 타고 양평군을 달리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이 내걸린 카페촌이 눈에 들어오고, 물감을 앞질러 놓은듯 누런 들판엔 패션모델 같은 허수아비들이 바람에 깡통소리를 내며 참새를 쫓고 있다.

이런 양평군에 얼마전부터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겨났다. 장승. 양평군 12개 읍면중 하나인 단월면 도로변 곳곳에는 장승들이 삼삼오오 서서 이방인을 맞는다.

이렇게 양평군이 ‘장승의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면민들과 장승조각가 채용병씨(40)의 남다른 노력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춘천에서 활동하던 채씨는 지난해 양평군으로 부터 장승 3백개를 깎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올 4월 전통공예상설교육장 예정지이자 폐교가 된 산음초등학교로 이사해왔다. 채씨는 단순히 자신이 장승을 만들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장승을 깎아 동네어귀에 세워두는게 자부심을 갖게하고 예산도 밖으로 안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군당국을 설득했다.

이 폐교 일대가 ‘가루니 장승촌’이라 할 수 있다. ‘가루니’는 삼거리중 아랫길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미래로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채씨의 야심과 회원이 함축된 말이다.

“액막이·노표 구실을 하던 장승이 현대로 오면서 본래의 기능이 다 퇴색됐어요. 우리 문화를 보

장승 응용 액세서리·생활용품 만드는 채용병 가루니장승촌장

사라져 가는 장승을 ‘**현대인의 생활속**’으로

존·전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장승의 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수천년 세월을 거치며 조상들과 회로애락을 같이 해온 대표적 문화유산인 장승이 미신으로 몰려 일부 종교인들과 트러블 대상이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전자공학도로 36세에 脫서울 시도

서울 토박이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채씨는 막노동과 인테리어·여행사·대학 교직원 생활을 하다 36세에 부인과 아들을 놔둔 채 서울을 탈출(?)해 춘천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로부터 장승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지름 2~3미터 높이 10미터의 대형 장승으로 부터 시작해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꼬마 장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장승을 만든다. 용도도 핸드폰고리·열쇠고리·목걸이·벽걸이·차스폰 등 가지가지다. 우리 한민족의 순박미와 소박미·해학성이 담긴 장승을 현대 감각에 맞춰 소형화하고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매출은 많지 않다. 일일이 손으로 깎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 방 한쪽에는 제82회 천안 전국체육대회에 납품할 ‘햇불도령’ ‘햇불낭자’라고 쓰인 장승들이 자루하나에 가득 들어있다. 그렇다고 특별히 홍보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해에 한두번 문화상품전에 나가는 게 고작일 뿐 아는 사람이나 입소문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주는 전형적인 가내 수공업이다. 하루

에 꼬마장승 50개 정도를 깎는다. 그래 봐야 일당이 나올까 말까해 수입은 셈할 형편이 아니다.

그는 장승의 매력을 “내 마음대로 깎을 수 있다는데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곳 양평에 와서도 주민들에게 장승 제작을 가르치긴 하지만 채씨는 ‘이들을 지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승은 잘 깎고 못 깎고가 없습니다. 칼·끌·망치로 눈동자·코·이빨 깎다보면 장승이 됩니다. 누구나 장승을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채씨는 조형미를 살리도록 도움을 준다. 채씨는 이곳에 온 후로 마을주민 60여명과 함께 장승을 5백개 정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승을 깎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든 50대 이상으로 취미나 부업 정도로만 생각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본업으로 영위해 나갈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본업으로 장승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장승을 깎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이 말만 많지 실제로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한다. 채씨 자신도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장승에 대한 관심이 흐지부지될까봐서 ‘외도’는 안하고 있다.

“단월하면 장승, 양평하면 장승” 목표

채씨는 앞으로 폐교를 전통문화학교로 만들어 장승 조각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장승을 몇 개 깎을까 생각해보니 20만개 정도 될 것 같더군요. 지금까지 4~5만개 깎았을까? ... 장승은 일일이 손으로 깎아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장승을 깎



(위로부터) 장승을 응용한 벽걸이·차스폰·장식품.

는 사람이 많아야 장승을 널리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채씨는 국내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일본·대만·홍콩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염색·민화·연만들기·짚풀공예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월하면 장승, 양평하면 장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10월 '상달'은 '한국판 추수감사절'

햇곡식 · 햇과일 수확해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

음력 10월을 '상달'이라고 한다. 상달에는 1년 열두 달 중 제일 높은 달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나라를 세웠다는 '개천절'이 있는 달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개천절은 시조 단군이 왕검성에서 도읍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즉위한 날이다. 그래서 음력 10월을 상달로 여겨 동제 · 고사 · 시제 등 신(神)과 조상에 대한 제례를 지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길일을 택해 고사를 지내는데 10월에 첫 번째 맞는 말날(午日), 보름날의 하원(下元), 20일의 손돌풍이 대표적이다.

박 후 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예로부터 음력 10월은 '상달'이라고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년 내 농사가 마무리되고 신곡신과(新穀新果)를 수확해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고 풀이했다.

상달에는 많은 종교적 행사가 전승되어 왔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부여의 영고(迎鼓) 등의 제천의식, 고려시대의 팔관회(八關會), 조선시대에 민가에서 지내는 고사, 마을제사 등으로 전승됐다. 현재에도 집안의 고사와 마을제사 등이 음력 10월에 열리는 곳이 많다.

상달 고사는 음력 10월에 집안의 안녕을 위해 가신(家神)들에게 올리는 의례를 말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집안 일을 돌아보고, 음으로 도와준 보이지 않는 힘에게 감사 드리는 마음이 담겨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하여 일정한 형태의 신체(神體)를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렸다.

고사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장 혹은 안주인이 의례를 진행한다. 고사를 지낼 때는 좋은 날을 가려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안으로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킨다. 제물로는 주로 시루떡과 술을 준비한다. 떡은 떡의 켜를 만든 시루떡과 켜가 없는 백설기를 만들며, 술은 주로 막걸리를 먹는다. 중요한 가신인 터주신 · 성주신 · 제석신 · 조왕신 등에게 배례와 축원을 하고, 이밖에 칠성신 · 축신 · 마당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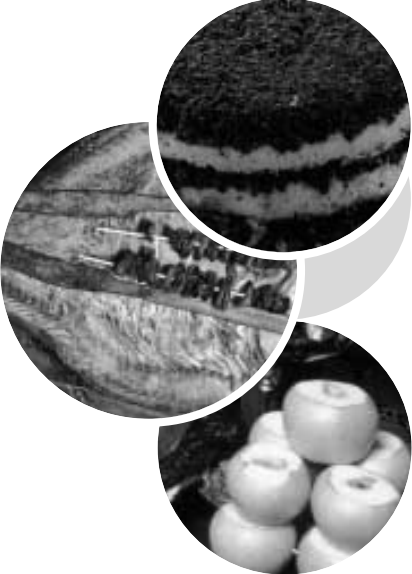
문신 등에게는 제물만 놓아둔다. 고사가 다 끝나면 떡과 술로 사방에 고시례를 한다.

고사는 궁중에서도 지냈는데, 궁중 발기 가운데는 고사발기가 있어 떡 · 술 · 북어 등이 중요한 제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종 38년(1543)의 발기에 보면 시루떡과 백설기, 탁주 · 약주 · 쇠머리 · 돼지머리 · 북어 · 후추 · 과일 등이 제물로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사대부가에서는 성주신에게는 팔시루떡을 시루 쪄 대청 대들보 아래 소반에 받쳐놓고, 큰 사발에 정화수를 담아 시루떡 위에 얹고, 그 위에 북어 세 마리를 얹어 대접했다. 삼신에게는 안방 다락 위 한 쪽으로 작은 시루에 찢 백설기 시루를 놓으며, 터주신에게는 장독대에 중간 시루로 찢 팔시루떡 시루 위에 막걸리 사발과 돼지머리 삶은 것을 놓는다. 조왕신은 부뚜막의

한 단 높은 곳에 팔시루떡을 시루 쪼개 놓고 북어와 정화수를 놓는다.

한편, 고사를 지내고 난 뒤 고사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관례이므로 집집마다 떡을 돌려 서로 교환함으로 써 인정을 나누기도 했다.

고사를 조금 크게 하고자 할 때는 무당이나 중을 불렀다. 무당이 행하는 경우에는 제금(바라)만을 올리면서 축원해 집안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빌어 준다. 중을 부르는 경우에는 떡을 하지 않고, 간단히 고사반(告祀盤)을 만들어 놓고 중이 염불을 읽는다. 고사반은 그릇에 쌀을 수북히 담아놓고, 실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세워 꽂아놓은 것이다. 실타래는 수명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의 장수·건강을 비는 뜻이 강하다. 이때 부르는 염불을 ‘고사반’이라고도 한다. 걸립승들이 주로 고사반을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내용은 어린 아이의 수명장수를 비는 축원덕담을 염불로 외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염불로는 ‘회심곡’이 불렸다. 

상 달

말날 음력 10월 첫째 오(午)일

말(馬)은 아주 요긴해 소중히 여겨오던 짐승이다.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은 더 말할나위 없지만 짐 싣고 수레 끌고 농사일 거들던 노동력으로도 으뜸이었다. 그래서 10월달 처음 맞는 말날(午日), 마구간에 띄시루 차려놓고 말이 탈없이 새끼 잘 낳고 주인 말 잘 듣도록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다. 이를 마제(馬祭)라 부른다. 10월의 오일(午日) 중에서도 무오(戊午)일을 상마일(上馬日)로 친다. 무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병오(丙午)일이 첫 번째 말날로 들 때는 ‘병(丙)’자가 질병, ‘병(病)’의 음과 같다하여 고사 지내지 않았다.

하원 음력 10월 15일

음력 10월 상달의 보름날을 하원(下元)이라 하여 5대 이상의 조상님들을 한꺼번에 모셔 시제를 올렸다. 이를 ‘시제(세제 歲祭)’라 부른다. 시제 때는 도회에 나갔던 후손까지도 모두 모여들므로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문중에는 한 두사람 예의 작법에 밝은 이가 있어 제례에서의 행동거지와 예법을 지적해 알려준다. 그래서 친척간의 단란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문중의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습시키는 교육의 도량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시제 때 많은 자손들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묘자리가 명당일수록 후손이 발복된다고 전한다.

손돌풍 음력 10월 20일

음력 10월 20일은 ‘손돌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상례적으로 바람이 대작(大作)한다. 특히 강화도 앞바다에서는 이즈음에 이상한 바람이 분다고 한다. 이 바람을 손돌바람·손돌이 바람·손돌풍(孫돌風)·손석풍(孫石風)이라고도 하는데 바람이 매섭고 추워 이 추위를 ‘손돌이 추위’라고 한다. 절기상 소설(小雪)과 대체로 겹친다. 손돌풍의 매서움에 관한 사연은 조선시대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播遷) 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천가던 왕이 탄 배가 통진(通津) 강화 사이에 이르러 풍량이 거세게 일었다. 그런데 뱃사공 손돌은 여울물쪽으로만 노를 젓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파천하는 처지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손돌을 수상히 여기고 죽이라고 명령했다. 손돌은 “여울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 길이 강화도로 가는 안전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뱃길을 잃게 되면 이바지를 배 앞에 던져 이 바지를 좇아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처형당했다. 술돌이 처형되자 왕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직전에 이르러 손돌이 말한대로 바지를 던져 따라가니 무사히 강화도에 당도할수 있었다. 왕은 손돌을 위해 사당과 비석을 세웠다. 그 뒤 매년 이 날이 되면 날이 몹시 추워지고 광풍이 인다고 하여 손돌의 영혼이 큰 바람, 즉 손돌바람이 되어 분다고 여겼다.

30년전의 약속을 찾아서...

일본 나나오시 공민관과의 교류행사를 추진하며

日本國 七尾市 御抜公民館과 韓國 金泉市文化院은 같이 社會教育의 實踐團 同志로서 相互間의 教育社會의 文化的交流를 통하여 兩公民館의 友好親善을 깊이 하는 同時에... (이하생략)

이 글은 지난 1970년 7월 6일 일본 이시와현(石川縣) 나나오시(七尾市) 시장실에서 당시 미소기(御抜) 공민관 오꾸다고조 관장과 본원 초대 원장 강중구 박사 사이에 체결된 자매결연 협약서의 일부이다.

이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금년 6월 27일 미소기 공민관장을 비롯한 나나오시 공민관연합회 임원 일동이 김천을 방문했고 이어 9월 14일에는 본원 임직원 일동이 나나오시를 방문해 미소기 공민관을 비롯

한 사회교육 시설 등을 견학했다.

1970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1982년까지 연례적인 교류행사가 있어왔으나 이후 20년 가까이 교류가 중단돼 있던 터라 이번의 상호 교환 방문은 지난날 양 단체의 선배님들이 맺은 친선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나나오시 공민관연합회 임원 김천 방문

나나오시 공민관연합회 다나카센슈(田中選秀) 회장을 단장으로 한 공민관 관장 일행이 6월 27일 김천을 방문했다. 이날 저녁 일행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김천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됐고 본원 전 임직원이 참석해 일행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다나카 센슈 연합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단체간 우호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문화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건네 큰 박수를 받았다. 이튿날, 일행은 박팔용 김천시장과 한시중 김천시의회의장을 예방해 양도시간의 지역문화교류방안에 대한 환담을 나눴으며 김천문화



김 길 수
김천문화원장



예술회관과 직지사 등 김천의 문화기반시설과 유적지를 견학했다.

김천문화원도 나나오시 방문

나나오시 공민관 연합회 임원 일동의 김천 방문 후 본원 임직원의 답방이 추진됐고 9월 14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나나오시를 방문하게 됐다.

고마즈(小松) 공항에 도착해 보니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나오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장 후지 가쓰요시씨를 비롯한 일행이 나나오 시청 차량까지 대절해 우리를 반가이 맞아줬다.

이어 일행은 나나오 시청을 방문, 이시가키 히로시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교육장 등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가키 시장은 김천시와 나나오시의 각별한 인연을 거론하며 양도시의 문화단체간 교류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또 나나오시 공민관연합회 산하 13개 공민관 중에서 본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미소기 공민관을 둘러봤는데 건물은 소박하고 작았지만 실내는 매우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특히 지난 1970년 본원과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의 협약서 원본과 주고받은 기념품, 기타 김천관련 자료가 별실에 따로 전시해 놓고 있어 이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원이 지방의 전반적인 문화영역을 망라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공민관은 우리의 문화학교와



일본공민관 일행이 박팔용 김천시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천문화원 일행이 일본의 '선 라이프 플라자'를 견학하고 있다.

같은 성격으로서 이를 활성화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또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우리의 동(洞)에 해당하는 각 정(町)마다 공민관이 설치돼 있고 직장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해 보였다.

한편 나나오시 공민관 연합회에서는 14일 저녁 우리 일행을 위한 성대한 환영만찬회를 열어 주었다.

예상과 달리 나나오시의 기관단체장과 공민관 임직원, 회원 일동이 대다수 참석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줬다. 또한 우리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이튿날 우리는 우리의 문화예술회관에 해당하는 나나오시 선 라이프 플라자(sun life plaza)를 견학했는데 규

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내부 시설은 국내의 우수한 문예회관 못지 않게 잘 짜여져 있었다.

특히, 복지강국답게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공간이 눈에 띄게 많았다. 또, 나나오시와 인근지역의 여러 문화유적지를 둘러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꾸분지(國分寺)라는 옛 사찰터에 대한 기억이 두근두근 남는다.

우리는 국가 지정 사적지라는 말에 적잖이 기대를 하고 방문했는데 실상 우리를 맞은 것은 황량한 벌판에 대문하나 그리고 덩성덩성 박아놓은 나무 기둥이 전부였다. 다소 실망한 빛을 보이는 우리에게 그들은

이 사찰에 얹힌 역사와 복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까지 세심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리고 바로 옆에 기념관까지 건립해 놓은 것을 보고는 일행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나오시와 인근 지역을 경유한 우리의 일본 방문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무사히 그리고 알차게 끝을 맺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우리는 이번 방문에 다소 고심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방문을 결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교류를 통해 3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맺은 친선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에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베이징 골목사이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북경자전거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와 샤오슈아이 감독의 '북경 자전거' (11월 3일 개봉)는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성장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자전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끌어내고 있는 영화다. 중국에서 자전거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기에 이 영화는 중국인의 정서를 대변한다 할 수 있다. 그들 모두는 자전거를 샀을 때의 기쁨과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아픔을 기억하며 10·20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첫사랑과 어른이 되고픈 갈망. 그 소중한 기억들은 성인이 되고 삶에 찌들어가면서 점차 퇴색돼 가고 기억에서 서조차 조금씩 지워져 간다. 그래도 그 시절의 감성은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영화 '북경자전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자전거는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자전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로 여겼다. 중국에서 자전거는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지만 다들 더 발전된 것(오토바이·자동차)으로 바꾸고 싶어한다. 이는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의미한다.

#자전거에 목숨 건 시골소년, 구웨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베이징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시골소년. '구웨이(췌이 린

분)'는 배달 일을 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6백위안 짜리 실버 자전거를 대여 받는다. 주위에 친구가 없는 그는 배달 회사로부터 빌린 자전거가 유일한 친구이자 재산이다. 돈을 벌어 그 자전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결심을 한 구웨이는 손님들의 불평·불만과 주위의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 나간다. 갖은 고생을 해 가며 6백위안을 거의 모았을 무렵, 구웨이는 그만 그토록 사랑하던 자전거를 도둑 맞는다. 베이징 전체를 뒤져가며 자전거를 찾아 나선 구웨이는 한 소년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항상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불량스러운 소년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고민만 하게 되는데...

#'폼생폼사' 도시소년, 지안

행복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비뚤어진 생활을 하는 도시 소년. '지안(리 빈분)'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질을 하면서 베이징의 뒷골목 생활을 한다. 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귀엽고 깜찍한 여고생 '지아오'와 얼마전 불법매매시장에서 부모님 몰래 모은 돈으로 구입한 실버자전거.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 자전거를 볼 정도로 자전거를 사랑하는 지안은 지아오와 산책하던 도중 누군가가 자신의 자전거를 훔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친구들을 불러 그 도둑을 추적



한 지안은 도둑을 잡아 두들겨 팬 후 자전거를 되찾는다. 지안은 피투성이가 돼 자전거가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웨이를 뒤로한 채 친구들과 유유히 사라진다. 도둑으로 몰린 구웨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되찾기 위해 계속 지안 주위를 배회한다.

실버 자전거를 둘러싼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그 사이 그 둘에겐 묘한 우정이 싹튼다. 어쩔 수 없이 구웨이와 지안은 하나의 자전거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는데...

#열 일곱 살의 설레임, 지아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지안의 학교 친구. '지아오(가오 유안유안 분)'는 지안에게 사랑을 느끼며 다가간다. 하지만 그녀는 내성적이고 무뚝뚝한 지안에게 점점 관심을 잃어간다. 급기야 모든 멋쟁이 학생들의 필수품인 자전거를 잃어버린 지안이 못마땅해 차갑게 대하기만 하는데...

#외로움과 화려한 고독, 킨

베이징의 호화로운 건물에 사는 신비스러운 여인. '킨(조우원 분)'은 매번 화려한 옷을 입고 창 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의 본 모습은 도시여인을 갈망하는 부자 집의 가정부다. 구웨이와는 다른 꿈을 꾸며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구웨이와 닮은 점을 갖고 있다. 구웨이는 그녀를 멀리서 몰래 보는 것으로 일하는 이외의 시간을 보낸다. 그녀의 얼굴에는 웬지 모를 외로움과 고독이 서려있어 보이는데...

시골 사람들은 도시 생활의 부귀영화를 갈망한다. 왕 샤오슈아이 감독은 중국에서의 도시와 시골의 차이, 그리고 중국의 변화를 열 일곱 살의 두 소년의 자전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감독은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빌딩에서 뒷골목까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깨끗한 도로와 골목들, 최고급 외제차와 자전거, 선택하고 있는 노인과 활기 넘치

는 젊은이들, 전형적인 베이징 도시인들과 도시생활을 꿈꾸는 시골사람들. 이 모든 것들로 오늘날 중국의 변화를 대변한다.

'북경자전거'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감독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낸 용기, 그리고 절제돼 있으면서도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는 마력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는 '제51회 베를린영화제'에서 금곰상에 노미네이트 됐고 심사위원 특별상(은곰상)과 신인남자 배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84%의 압도적인 지지로 관객상을 수상했다. 신인 배우 같지 않은 뛰어난 연기력과 미소년 같은 외모로 '쥬이 린'과 '리 빈'은 국내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시사회장에서 영화를 만난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한참 뒤에도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문



자료제공: (주)GAMJA PICTURES

日 역사 교과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㉘ 기존 7종 교과서

‘임진왜란’ · ‘정한론’ 원인 조선측에 전가… 군대위안부 문제도 누락여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관련 내용을 왜곡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후대들에게 그릇된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우(愚)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㉘편 후소샤교과서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기존 7종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국과 한일합방 · 군대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하거나 덮고 있다. 고조선의 존재를 간과한 채 고구려를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라 기술하는가 하면 임진왜란이나 정한론 · 강화도사건의 발생원인을 조선측에 전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강제병합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 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다. 월간 우리문화는 지난호의 후소샤 교과서 이어 기존 7종 교과서 관련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日 역사 교과서 내용 → 수정 요구 의견

(1) 고대 한 · 일관계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日本書籍, 日本文教出版, 清水書院)

· 한의 영향을 받아……조선반도 북부에서 소국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다→고조선의 존재를 간과하고, 한반도의 첫 통일국가를 고구려로 기술하며, 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연표상의 시기가 부정확)

· 한은 조선반도와 베트남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한의 지배영역을 과장하여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

(2) 임나일본부설 (東京書籍, 大阪書籍, 日本書籍, 清水書院,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

· 6세기에 야마토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잃었다(약해졌다),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뻗었다→허구의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

(3) 왜구 (清水書院, 帝國書院)

· 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때에 따라 무역을 강요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왜구의 해적 행위를 주로 무역에 종사하다가 가끔 저지르는 약탈행위로 왜곡 · 미화

· 왜구란 제주도와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제주도를 왜구의 거점으로 설명

· 일본인만이 아닌 조선인과 중국인 등도 섞여 합류→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 ‘왜구=일본인’ 이란 기존 역사 인식을 불식시키려 함

(4) 임진왜란 (東京書籍, 大阪書籍, 教育出版, 清水書院, 帝國書院, 日本文教出版)

· 조선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통행허가를 거절하자……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측에 전가

· ‘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넘는다’→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

(5) 정한론 (東京書籍,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文

敎出版)

· 일본정부는 조선에 국교를 열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 국내에 정한론이 일어났다→조선의 거부가 기존의 선린외교 관계를 무시한 채 국교회복을 강요하는 일본측의 태도에서 비롯했음을 설명하지 않고, 정한론의 발생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 중국의 속국으로 위치지워져 있던 조선은……일본과의 국교도 거절했다→당시 조공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

(6) 강화도사건 (帝國書院, 敎育出版)

· 일본의 군대가 강화도에서 포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조선의 포격을 유도한 일본측의 저의를 은폐하고 강화도 사건의 원인을 조선측에 전가

· 청은 조선을 종속국으로 간주→‘조일수호조규’의 ‘조선은 독립국’ 조항은 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지 않음

(7) 동학농민운동 (大阪書籍, 清水書院)

·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켜→농민의 저항을 ‘반란’으로 표현,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

· 일본은 조선지배를 계기로 삼아 중국으로의 진출→‘조선 지배’라는 표현은 일본이 당시 조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청의 출병을 알게 된 일본은 군대를 보내……전쟁을 시작하였다→왜군파병을 청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로 기술하여 일본의 계획적 파병을 은폐

(8) 한국강제병합 (日本文敎出版)

·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며, 식민지로서 지배했다→한국 강제병합의 원인을 안중근의 이토 사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계획성을 은폐

(9) 황민화정책 (東京書籍, 日本文敎出版)

· 지원한 조선의 젊은이들(사진 설명), 조선에서는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지원병제도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 전쟁참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

· ‘천황의 백성’에 걸맞는 황국식민이 되도록 동화를 강요당했다→황민화정책의 구체적 기술 미흡, 신사참배 일본어 교육 강요 등 구체적 내용 기술 필요

(10) 군대위안부 · 강제징용 (東京書籍, 大阪書籍, 敎育出版 日本文敎出版)

·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최근 유엔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류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했음과 모집, 이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편집부>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화 끊을때 ‘살며시’

며칠전 회사일로 거래처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저쪽편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여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거래처에 대한 인상도 밝아지고 계약에 대한 일도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좋았다. 그런데 그쪽에서수화기를 놓을 때 너무 요란하게 놓아버려 마치 화난 사람처럼 끊어 버리는 게 아닌가.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어도 전화를 끊을 때 오해하기 딱 알맞았다. 몇 년전 국내 모 그룹에서는 전화를 끊을 때 상대방보다 늦게 끊던가, 아니면 손으로 눌러 끄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고 들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데서 친절과 감동을 느낀다. 전화받는 목소리가 상냥한 만큼 전화 끊을 때도 매너있게 했으면 한다. 누구나 그런 문제로 기분 상한 적이 있었을 텐데 왜 자기가 전화 끊을 때의 버릇은 고치지 못할까.

(홍세연 hsy0415@netsgo.com)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굴비 귀양살이 하지만 屈非 굴복하지 않는다 非

류 장 수 前 월간 '우리문화' 편집주간

굴비는 참조기를 소금물에 간해서 말린 건어물로 우리나라 식탁에서 사랑 받는 식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해에서 참조기가 자취를 감춰 굴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그래서 굴비는 서민들은 맛보기 어려운 고급식품으로 신분 상승(?)했다. 참조기 아닌 부세 등 유사조기를 말려 굴비로 둔갑시킨 가짜도 많다.

옛날에는 조기가 3월의 천신(薦新) 식품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조상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계절마다 새로 나온 식품은 우선적으로 종묘와 가묘에 바치곤 했다. 그리고난 다음에야 사손들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식품을 조상께 바치는 예(禮)를 임금의 수범해 온 나라 백성들이 본받게 했다.

3월의 천신식품인 조기를 소금물에 절이고 말려서 5·6월 복중에 입맛 없을 때 식탁에 올린 것이 '굴비'다. 이 굴비는 왕후장상이나 귀한 댁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식품이었다.

서민층이나 귀한 댁 노비들은 주인 댁에서 먹고 남은 머리부분이나 껍데

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조기 머리부분은 살뜨물에 끓여서 빼는 발라먹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낮은 품격이다. 이처럼 한국의 풍속도가 엇보이는 식품인 '영광굴비'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다음과 같은 내력이 전해진다.

고려 17대 인종(仁宗)때 일이다. 이자겸은 인주(인천) 사람이었고 임금의 외조부였는데 그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다. 그 중 둘째 딸이 선왕(예종)의 비(妃)가 돼 인종을 낳은 것이다. 인종이 즉위할 때 아직 나이가 어린 탓으로 왕족 중 왕위를 엿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자겸이 서둘러 어린 왕을 보호하고 무사히 왕위에 오르도록 만들었다. 그 공으로 이자겸의 세도는 당당해졌다.

인종은 모후 순덕왕후 이씨, 즉, 이자겸의 둘째 딸을 문경왕태후로 추존하고 이자겸을 수태서 중서령 소성후로 삼았다. 이자겸은 실권을 쥐자 먼저 정적(政敵)인 한안인(韓安仁) 일파 50여명의 목을 쳤다. 귀양을 보내거나 삭탈관직해 추방한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세도가 이렇다보니 이자겸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이자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을 국공(國公)으로 책봉토록 강요했고 자기 셋째 딸을 왕비로 삼도록 했다. 말하자면 인종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를 아내로 삼은 셈이다. 이자겸의 이같이 인륜도덕에 어긋난 혼사를 강행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권을 영원토록 잡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인종의 외조부인 동시에 장인이 된 이자겸의 권세는 날로 더해갔다.

인종 4년, 왕도 어느덧 나이 18세가 됐다. 비록 성숙한 성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물정을 대강 짐작할 나이가 된 것이다. 이때 이자겸이 병권마저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통에 왕은 화가 치밀었다. 이러한 왕의 심정을 내시지 후 김찬과 내시녹사 안보린 등이 눈치챘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겸의 방약무인한 소행을 밟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왕의 외조부이며 장인이라는데 대한 두려움으로 꺾 참고 있었다. 그러나 왕 자신이 이자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감지한 이상 그들은 두려워 할 것이 없었다. 김찬과 안보린은 밀회를 거듭한 후 왕에게 뜻을 전하고 이자겸 일파를 제거키로 했다. 그들의

전남 영광으로 귀양간 이자겸이 왕에게 말린 조기 진상하며 쓴 글귀서 유래

계획은 상장군 최탁, 오탁, 대장군 권수 등과 힘을 합해 군사를 일으켜 궐내에 들어가 자겸의 심복 척준신, 척순 등 대여섯 사람을 죽이고 이자겸의 오른쪽 날개인 척준경과 자겸을 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중 구석구석에 배치된 자겸의 사람들이 재빨리 연통해 자겸일파의 반격이 시작됐고 이와중에 대결이 불타는 화를 당했다.

인종은 신변에 위협이 미칠까 두려워 자겸에게 글을 보내 선위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자겸은 양부(兩府)의 공론이 두려워 울면서 글을 되돌려 보냈다. 왕은 궁궐이 불타버려 남궁으로 이어졌으나 이자겸은 왕을 겁박해 자기 집으로 옮기고 국정에 관해 일체 관여치 못하게 함은 물론 일거일동을 감시했다.

고려는 12손으로 망하고 18자(李字의 파자) 즉 이씨가 왕이 된다는 '십팔자비결'이라는 것을 이자겸은 믿었다. 그러나 왕이 살아있는데 왕위를 물려받으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왕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겸은 왕비인 딸을 이용키로 하고 독이 든 떡을 만들어 왕에게 전하게 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를 의심해 왕에게 귀뜸을 해주었다. 왕이 마침 뜰 아래 새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떡을 떼어 던지니 새들이 조아 먹고 이내 죽고 말았다. 자겸은 믿고한 딸을 질책하고 이번에는 독이 든 국을 끓여 다시 들려보내고 딸의 행동을 감시했다. 딸은 아버지 감시 때문에 왕 앞에까지 국그릇을 가지고 가다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국을 엎질러 버렸다. 인종은 아버지보다 왕을 더 생각하는 왕비의 덕으로 화를 면했



던 것이다. 이즈음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겸이 권세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나 때문인데 이제 세력을 잡았다고 저렇게 방자할 수가 있나” 하며 척준경이 이자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내의(內醫) 최사전이 왕의 사신을 가지고 와 왕실의 보전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간청했다. 척준경은 백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실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대궐 안으로 달려가 왕을 군기감으로 모셨고 이자겸과 그 가족을 잡아서 지금의 전남 영광 땅으로 귀양 보내고 그 일당도 멀리 유배시켰다. 이때 왕비 이씨들(이자겸의 셋째와 넷째딸)도 모두 폐출시켰다.

정주(지금의 영광)땅은 법성포 모래벌판과 그 강산이 수려해 이른바 소동정호(小洞庭湖)라 불렸다. 아름답리 송림이 우거진 법성포, 넓은 백사장과

3월의 천신식품인 조기를
소금물에 절이고 말려서
5·6월 복중에
입맛 없을 때
식탁에 올리던 것이
‘굴비’다.
이 굴비는
왕후장상이나 귀한 댁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식품이었다.

●
이자겸은
말린 조기를

개경의 임금에게 보낼 때
'굴비(屈非)'라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번
뜩 스쳤다.

그래서 '정주굴비(靜洲屈非)'
이네 글자를
임금에게 진상하는
말린 조기(乾石首魚)에 써 붙였다.
귀양은 왔지만
결코 꺾이거나 굴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본때를 보이겠다는
객기였다.

큰 바위들, 그 해변가에서 이자겸은 외
롭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다. 이른 봄
부터 포구에서는 어선들이 줄을 지어
돛을 내려 쉬는 듯 조는 듯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묵객(墨客)으로
숨쉬는 해심(海心)을 향해 시를 읊기
도 했다. 이자겸의 선조 이허겸은 본래
기씨(奇氏)였는데 신라 대관으로서 당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글을 잘해 친
자로부터 이씨성을 사성받았다. 그래
서 이씨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치 대
대로 글솜씨도 좋았고 체념도 빨랐다.

정주땅에는 이른 봄부터 조기잡이가
한창이었다. 칠산바다에서의 조기잡이
는 조기가 너무 많이 잡혀 처치 곤란할
정도였다. 그래서 어부들은 팔고 남은
조기를 소금에 절였다가 모래바닥이나
바위 위에 늘어 놓고서 물기를 뺀 후 말
려서 재놓았다. 이렇게 말린 조기는 소

금기가 많은 해풍에 마르면서 숙성이
돼 그 맛이 일품이었다. 그 조기는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었다.

이자겸은 정주에 와 이 조기 맛을 보
고는 귀양살이를 좋은 일로 생각했다.
이런 좋은 맛을 가진 조기가 왜 개경에
는 올라오지 않았는지도 궁금했다.

“내가 이렇게 맛 좋은 생선을 먹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지. 비록 귀양
살이는 하지만 꺾이거나 쪼그라들지 않
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이자
겸은 무릎을 쳤다.

이 말린 조기를 개경의 임금에게 보
낼 때 '굴비(屈非)'라고 써야겠다는 생
각이 번뜩 스쳤다. 그래서 '정주굴비
(靜洲屈非)' 이 네 글자를 임금에게 진
상하는 말린 조기(乾石首魚)에 써 붙였
다. 귀양은 왔지만 결코 꺾이거나 굴하
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본때를 보이겠
다는 객기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자겸의 뜻을 알지
못해 “이것이 정주굴비인가?” 하면서
그저 맛있게 먹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인종은 정주굴비를 해마다
진상품으로 보내도록 진상품 품목에 추
가했다. 이로부터 정주굴비(영광굴비)
는 멀리 중국에까지 진상품으로 보내지
게 됐고 왕후장상이 즐겨먹는 고급식품
이 됐다.

'굴비'는 이자겸이 '굴복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름 지은 것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정주굴비는 정
주라는 지명이 영광으로 바뀌면서 영광
굴비가 돼 한 여름 밥반찬 또는 술안주
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다. 

●
'굴비'는

이자겸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름 지은 것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정주굴비는
정주라는 지명이
영광으로 바뀌면서
영광굴비가 되어
한 여름 밥반찬 또는 술안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월간 '우리문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ccf.or.kr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서울 특 별 시

[전국문화원연합회]

4박 5일간 문화원장 일본공민관 연수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1차 일본 공민관 연수를 떠난다. 전국의 문화원장 29명을 비롯 문화부·전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에서 이코마시 중앙 공민관과 타지리초 공민관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 또 아사쿠관음사, 황거, 동경시교육위원회, 미타카시 사회교육관, 긴자거리, 아와타시 시민교류센터,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오사카성 등지를 돌면서 일본의 문화를 견학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관계 증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문화원 운영활성화 컨설팅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오는 11월 15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회내 회의실에서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방안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경기도내 31개 지

방문화원을 비롯 '2001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 전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등이 참석해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인력체계 △시설 및 기자재 체계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추진 △향토 문화 활성화 방안 △문화강좌 추진 △문화예술행사 수행체계 등 7개 항목에 걸쳐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지회]

제2회 서울문화가족한마당큰잔치

서울시지회는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2회 서울문화가족한마당큰잔치'를 개최했다. 국악인 손화자씨의 사회로 총 2부에 걸쳐 열린 이번 문화가족한마당 큰 잔치는 서울지회내 문화원들이 참가해 무용·농악·판소리·연극·가곡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권용태 지회장은 "문화가족들이 한해동안 갈고 닦은 예능을 선보이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라며 문화원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화관광부]

16일 '2001지역문화행정 워크숍'

문화관광부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속초시 한화 콘도에서 지역 문화정책에 대한 비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간 상호유대를 강화하고자 문화관광부 관계자 6명을 비롯 16개

시·도의 문화예술담당과장·문화원 관계자 지역문화 학자 또는 전문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 지역문화행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555돌 한글날 기념식

문화관광부는 훈민정음 반포 5백55돌을 맞아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3천5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기념식'을 가졌다.

[서울시지회]

한강에 황포돛배 '두둥실'

서울시지회와 강남문화원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한강에 문화가 흐르게 하자'라는 주제로 '압구정 한강문화축제'를 거행했다. 축제에 참석한 정부 문화관계 주요인사들과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주한 외교사절 21개국의 43명 등은 세모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넘었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의 풍류와 선비문화로 상징되는 압구정 문화를 재현해 세계인의 이목을 한강으로 모았다. 이번 한강문화축제로 '전통과 문화가 흐르는 한강' 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울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전통고급문화와 각국의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세계문화축제 한마당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전자음악협회]

4~7일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01

한국전자음악협회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01(SICMF2001)'을 개최한다.

[종로구청]

제4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종로구는 오는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4개소에서 '제4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강남문화원]

10일까지 강남서예대전공모 작품 접수

강남문화원은 서울문화예술 육성의 일환으로 '제3회 강남서예대전'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시상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모전 신청요령 △자격=관내 및 서울 인근 지역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접수기간=10.22(월)~11.10(토) △제출작품=

타 전시회 출품하지 않은 참신한 작품 △접수장소=강남문화원 사무국 △참가비 2만원(온라인:국민은행818-25-0014-694, 예금주:(사)강남문화원) △구비서류=참가신청서(강남문화원 사무국에서 배부) △문의처=강남문화원 사무국(518-1295, 516-4239)

[관악문화원]

제14회 낙성대 인헌제

관악문화원은 지난 10월 20일 낙성대에서 유관기관·단체·구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낙성대 인헌제'를 개최했다.

[광진문화원]

3일까지 제6회 광진예술작가 초대전

광진문화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진구 문화센터 6층 전시실에서 '제6회 광진예술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광진구민의 미술 감상능력 신장과 미술창작생활화·보급화, 다양한 문화향

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 이번 초대전은 광진구 관내 저명한 동양화·서양화·서예·사진·공예 등 예술작가의 전시회로 꾸며졌다. 이 전시회로 인사동 등 중앙 화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또 10월 27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제4회 광진 청소년 문예대제전'을 개최해 미래의 지역문화발전의 토대가 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창작활동 기반을 확대 발전시키고 정서함양에도 기여하는 자리를 제공했다.

[동작문화원]

제545주년 사육신 추모 문화제

동작문화원은 지난 10월 8일 오후 6시 30분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사육신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리고자 제545주년 '사육신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마포문화원】

이선재 신임 문화원장

마포문화원은 지난 10월 15일 오후 5시 이종상원장 후임에 이선재 전 서울시지



회 부의장을 선출해 이선재 마포문화원장 개원4주년 행사와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이선재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마포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건이 충족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획기적인 성장과 함께 열린 문화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종상 전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마포구민의 문화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마포문화원은 지난 99년 7월 31일 세상을 떠난 故김원배 마포문화원장에게 공로패를 추서했다.

【중구문화원】

구민의 날을 기념한 '열린 음악회'

중구문화원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제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금정문화원】

박희경 사무국장 임명

금정문화원은 강인자 사무국장이 퇴임함에 따라 박희경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사상문화원】

2001사상팔경축제

사상문화원은 지난 10월 11~13일 3일간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1사상팔경축제'를 개최했다.

【울산남구문화원】

10월 25일 남구문화원 개원
李 구청장 '문화원 지원' 약속

울산 남구문화원은 10월 25일 문화원 앞뜰에서 김승태 울산 남구문화원장을 비롯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이채익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김도수 남구의회회장 등 각계 인사와 관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거행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풍물패와 울산학춤 보존회의 학춤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식에서는 국민의례·축



김승태 울산남구문화원장

시낭송·축가에 이어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의 문화원 기 수여식과 이채익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서진길 前울산문화원장·김덕균 前울산문화원 사무국장·이철호 前남구문화원설립준비위원장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자리에서 이채익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우리의 젊은 세대에 지역전통문화와 향토사에 대한 인식과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남구문화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행정은 구민 전체의 참여와 지원을 얻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도수 울산 남구의회 의장은 “이번에 개원한 ‘울산남구문화원’이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울산문화원의 맥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론 다각적인 문화활동을 수행함으로써 35만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남구문화원을 이끌어갈 김승태원장(73)은 홍익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85년 울산향토사연구회를 창립해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안양여상 교감·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부설 노인학교장·울산향토사연구회장을 지냈다.



경기도

【경기도지회】

광명시 ‘아방리 줄다리기’ 대상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지난 9월22~23일 이틀간 광명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서 광명시의 ‘아방리 줄다리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수상팀과 종목. △대상=광명시 아방리 줄다리기 △우수상=파주시 금산리두레놀이 △공로상2팀=양주군 양주교전농악·파천시 무동답교놀이 △장

려상3팀=용인시 대감파 무감놀이·가평군 농악놀이·화성시 왕재호상놀이 △노력상3팀=동두천시 탑동상여소리·성남시 판교널다리 쌍용거줄다리기·안산시 풍물놀이 △소품상=성남시 △지도상=광명시 임웅수 △연기상=파주시금산리 두레놀이.



【경기도지회】

김태훈 사무국장 ‘부천 문화상’ 수상

김태훈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이 제16회 부천시 ‘문화예술’ 부문 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76년 부천문화원에 들어와 83년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동안 향토문화 육성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김사무국장은 문화의 불

모지였던 부천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지역특성을 담긴 ‘복사골’이란 독특한 향토명을 붙여 각종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천을 ‘복사골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사무국장은 부천 문화발전을 위해 ‘복사골백일사생대회’

‘장말도당굿’ ‘복사골 농기고두마리’ ‘석촌농기고두마리’를 비롯 경기도내 31개 시·

군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학생농악경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바가 크다.



김태훈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대구광역시

【달성문화원】

달성충효예술제 개최

달성문화원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지난 10월 6~10일 5일간 제6회 달성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달성충효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중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와 군민들의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광주광역시

【광주동구문화원】

10월 문화의 달 기념행사

광주동구문화원은 10월 문화의 달 기념행사로 ‘개천절 개천대제’를 비롯한 ‘무등산과 음악의 어울림’·‘우리문화 열린한마당’·‘문화재답사’·‘제5회 2001무등산 역사 큰 잔치’·‘555돌 한글날 기념백일장’·‘제2회 광주민속놀이축제’·‘문화강좌’를 실시했다.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

노인요양원 방문 위안행사 벌여

대전서구문화원은 한가위를 맞이해 지난 10월 6일 사회복지시설인 성애노인

요양원을 방문, 전통예술공연 및 봉사활동으로 외로운 분들에게 위안을 드렸다.

경기도

【파천문화원】

제16회 파천문화의 날 기념 문화행사

파천문화원은 지난 10월 8~13일 파천시 일대에서 ‘제16회 파천문화의 날 기념 문화행사’로 ‘회화대회’ ‘시조경창대회’ ‘시민장기’ ‘바둑대회’ ‘판줄타기 공연’ ‘농악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문화재단】**제3회 경기민요경창대회' 22일 양평 군민회관서 본선 경연**

경기도문화재단은 우수한 민요이면서도 남도 판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민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회 경기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5개 권역별로 엄정한 예선을 거쳐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 양평군민회관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된다. 본선에 오른 대상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함께 2백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금·은·동·장려상과 상장이 주어진다. △문의 경기도문화재단=(031)231-7233, 한국국악협회경기도지회=(031)236-1070.

【성남문화원】**이완우씨 사무국장직으로 복귀**

이완우 성남문화원 사무국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무효청구 항소심에 대한 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1년 9월 12일 자로 사무국장직에 복귀했다.

【양주문화원】**제7회 양주문화제**

양주문화원은 지난 10월 19~23일 4일간 양주일원에서 '제7회 양주문화제'를 개최했다.

【용인문화원】**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

용인문화원은 용인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0월 6~13일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문화예술제는 '민속행사' '대학행사' '예술공연' '영화제' '전시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꾸며져 45만 용인시민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다.

【의정부문화원】**제16회 회룡문화제**

의정부문화원은 지난 10월 10~14일 의정부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제16회 회룡문화제'를 개최했다.

강 원 도**【정선아리랑위원회】****제26회 정선 아리랑제**

정선아리랑위원회는 지난 10월 7~9일 3일간 정선공설운동장 일대에서 '제26회 정선 아리랑제'를 개최했다.

**【태백산천제위원회】****개천절 맞아 천제 봉행**

태백산천제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태백산 영봉 천제단에서 천제를 봉행했다.

충 청 북 도**【제천시】****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개최**

제천시는 제천의병의 숭고하고 강인한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0월 8~14일 7일간 '모두 한마음 되는 2001 제천의병'이란 주제로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를 개최했다.

**【청양문화원】****제40회 청양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청양문화원은 지난 9월 13일~16일 4일간 제40회 청양군민의 날을 기념한 '제2회 고추·구기자 축제' '제3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제12회 칠갑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향토작가 서·화전'을 열었는데 개막식에 단묘 조병호 선생을 비롯한 출향작가들과 정원영 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주민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안종일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1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서화전에 참여한 출향예술인들의 예술적 정열과 애항심에 감사한다"며 "지방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기간 내내 청양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청양고추 판매장에는 도시소비자와 주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충청남도

【온양문화원】

제4회 청백리 고불 맹사성 기념축제

온양문화원은 지난 10월 11~12일 제4회 청백리 고불 맹사성 기념축제를 개최했다.

【진천문화원】

제23회 생거 진천 화랑제

진천문화원은 지난 10월 18~20일 백곡천 둔치에서 '제23회 생거 진천 화랑제'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김제문화원】

서예반 수강생들 대거 입상

김제문화원의 서예반 수강생들이 '제12회 전북서예대전'과 김제서예협회에서 실시한 '제1회 서예대전'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북서예대전에서는 최장식씨가 삼체상을 받아 특선했고 강정숙의 17명이 입선했다. 지평선축제를 기념한 제1회 서예대전에서도 최장식씨가 특선했으며 조혜숙·유창현씨가 입선했다.

전라남도

【진도문화원】

제4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진도문화원은 11월2~3일 3일간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제4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를 개최한다. 총 5개 부문(명창부·일반부·노장부·중고등부·초등부)에 걸쳐 경연을 펼치는 이번 행사는 2일 오후1시 예선을 거쳐 3일 오전 10시에 본선을 치른다. 이어 오후 5시에 시상식을 갖는다.

【경북지회 · 상주시】

‘구미문화원풍물단’ 도지사상 수상

‘구미문화원 풍물단’이 제10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인 도지사상을 안았다. 또 청소년부 대회에서는 구미시의 오산고 풍물패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에서 구미시는 양대 부문 최고상을 모두 휩쓸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북지회와 상주시는 10월 22~23일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경상북도내 시·군 대표 26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제10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농악 대회로 손꼽히는 이번 대회에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이의근 경북도지사·김근

수 상주시장등 각급 기관·단체장·문화예술계인사·도민등 2천여명이 참석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농악을 활성화하고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한마당이 됐다. 다음은 수상자명단.

〈일반부〉△우수상(전국문화원연합회 경북지회장상) = 청도군(이서면여성풍물단), △장려상(〃) = 경산시(경산시농악단) · 영천시(영천시농악단), △노력상(〃) = 경주시(경주문화원농악단) · 영덕군(영덕복사골풍물패).

〈청소년부〉△우수상(〃) = 김천시(김천농공고 풍물단), △장려상(〃) = 문경시(산

북초등농악단) · 영천시(영천여전산고 농악단), △노력상(〃) = 영주시(동산여전산고 농악단) · 봉화군(봉화여고 풍물패), △특별상(〃) = 의성군(다인초등농악단) · 영양군(석보초등농악단)



【경산문화원】

10월의 문화 인물 설총 선생 재조명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경산이 낳은 3성현 중의 한 분인 설총 선생이 문화관광부에 의해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경산문화원은 설총선생을 재조명키로하고 선생의 학문을 전승, 보전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펼쳤다.



【마산문화원】

‘제7회 詩의 거리 문화축제’ 열려

마산문화원은 지난 10월6~20일 ‘제7회 詩의 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의 첫날인 6일 서막제에는 마산시에서 선발된 합성초등학교 가야금병창·상남초등학교 사물놀이·월성초등학교 시조창팀이 출연해 각광을 받았다. 이어 문화원 주변

에서는 시화전, 중견작가회화전의 테이프커팅이 있었다. 또 7일에는 전국한글백일장이, 16일에는 문화학교 학생발표공연이, 19일에는 전국한시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경 상 북 도

제29회 신라문화제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8일 경주황성공원에서 ‘제29회 신라문화제’를 개최했다.

【문경문화원】

문경문화제·시민 체육대회

문경문화원은 지난 오전 10월 17일 오전 10시 문경시민운동장에서 문경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경문화제 및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농악 등 7개 종목의 문화제를 비롯, 육상 등 9개 종목으로 읍면동대항·학교대항·직장대항·번외경기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로 문경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지난 10월 8일에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정신을 길러주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7개 종목에 걸쳐 ‘제27회 학도 문화예술대회’가 열렸다.

【성주문화원】

성주군민체육대회·성주문화제

성주문화원은 지난 10월 11~16일 ‘제42회 성주군민체육대회’와 ‘제13회 성주문화제’를 개최했다.

【영주문화원】

제15회 소백문화제

영주문화원은 10월 6~20일 15일간 ‘제15회 소백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42회 영주영상회 사진전·생활도예전·제2회 미·사·모 회원전, 제2회 나연꽃 예술전, 제22회 영주사군자 동호회 회원전·제25회 영주서도회 서예전이 열렸다. 공연행사로는 상명대학교 현대무용단 초청공연·제4회 영주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2001청소년음악회·2001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진행됐으며 문예행사로는 가을축제 사진 공모전·태서지구 남·여 궁도대회·한시 백일장·제6회 회현 안향선생 추모 회화대회·제4회 영주사랑 학생미술 실기대회·제2회 벨라보체전국 음악콩쿨대회가 이어졌다.

【영천문화원】

제19회 영천문화예술제

영천문화원은 지난 10월 10~19일 10일간 문화원과 둔치마당, 시민회관에서 ‘제19회 영천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황성옛터’와 ‘영천아리랑’으로도 유명한 이 지역에서 열린 영천문화예술제는 왕평가요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제가 열렸

다. 가요제에서 수상한 1등에게는 냉장고가 주어졌고 2등은 TV, 3등은 자전거를 포상해 군민들의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

【울릉문화원】

제7회 우산문화제

울릉문화원은 지난 10월 9일 오후3시 도동항 해변 소공원에서 ‘제7회 우산문화제’를 개최했다.

경 상 남 도

【진주문화원】

제15회 전국한시백일장

진주문화원은 한문으로 남겨진 수많은 사적을 연구 정리하고 그 숭고한 사상을 이어받아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 진주축석루에서 ‘제15회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했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통영문화원】

‘푸른음악회’ 개최

통영문화원은 나전칠기의 우수성과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제4회 통영나전칠기축제(10월 12~15일) 기간 동안 통영문화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음악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자 지난 10월 12일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내 야외특설무대에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했다.

【의령문화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지 답사

의령문화원은 지난 9월 20일 10시 30분 군민문화회관 회의실에서 문화학교의 주부서예교실 ‘제6기생 수료식’을 가졌다. 의령문화원의 서예교실회원들은 각종 회화대회마다 대거 수상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의령문화원은 지난 9월 26일 184명의 임원 및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안동지역의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문화가족들은 안동화회마을·탈 박물관 도산서원·안동 민속박물관 등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진해문화원】

제7회 독서감상문 시상식

진해문화원은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진해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제7회 독서감상문 시상식’을 가졌다. 박차생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이사들과 심사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초·중·고

17개교에서 3백 34명이 작품을 출품했고 장원을 비롯한 31명의 수상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박원장은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습작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이 배우려는 의지를 상실할 때 인간적 성장이 중지되는 것이며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풍성한 자기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김해문화원】

청소년 예술단 일본 히젠조 공연

김해문화원의 (게릴라)청소년 예술단이 일본 히젠조 가을축제에 초청을 받아 11월 9~12일 4일간의 일정으로 공연을 떠난다. 초청을 받은 청소년 예술단은 고전 무용반 학생들로 구성된 ‘한가야 청소년 예술단’, ‘아름나라 합창단’, 김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울림 공간 사물놀이 예술단’이다. 이 예술단들은 일본으로 떠나기 앞서 10월 27일 거북공원에서 사전 국내합동공연을 가졌다. 한편 김해문화원은 555돌 한글날을 기념해 ‘제5회 한산 이윤재 선생 추모 한글 백일장’ 행사를 열었으며 10월 13일에는 칠암문화센터에서 김해문화원 문화학교 고전무용반(한가청소년예술단원) 김해여고 김송미 학생의 ‘제1회 전통춤발표회’를 열었다. 10월31일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씨를 가져와 차 문화를 보급한 덕을 기리고자 허왕후릉에서 ‘제3회 왕후릉 헌공다례’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주도지회】

‘제주인 표해록’ 발간 예정

제주도지회는 오는 12월중으로 ‘제주인 표해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제주문화원】

제7기 문화학교 수료식

제주문화원은 10월 31일 문화원 강당에서 문화학교 수강생 1백40여명을 비롯 주민·청소년·관내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생활문화 강연회와 제7기 문화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제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은 이에 앞서 20~24일(서예·동양화·서양화·꽃꽂이)과 25~30일(사진·종이예술공예) 두 차례 걸쳐 수료생 작품전을 가졌다. 한편 10월 7일에는 한라문화제 일환으로 문화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립자연사박물관·제주교육박물관·제주국립박물관 등을 돌아보는 ‘제주도 박물관 순례의 시간’을 가졌다.

부음

김일환 前용산문화원장 별세

김일환 前용산문화원장이 10월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강원 철원 출신으로 1937년 만주 군경리학교를 졸업한 뒤 제1공화국 당시 육군 중장으로 예편, 교통·내무·상공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최근 용산문화원의 초대원장으로 취임해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유족으로 부인 안경신씨(78)와 5남 2녀.





陽智面誌 용인문화원

구성면지와 기흥면지에 이어 세번째로 발간된 책으로 양지면의 향토사·향토문화 및 자료를 발굴, 체계화했다. 책은 제1장 총설, 제2장 환경, 제3장 역사, 제4장 정치, 제5장 산업·경제, 제6장 사회, 제7장 교육, 제8장 종교, 제9장 언론·출판, 제10장 문화·예술, 제11장 문화재·유물유적, 제12장 민속, 제13장 민속놀이, 제14장 성씨와 인물, 제15장 부록 순으로 구성됐다. 총 1353쪽의 책두께가 보여주듯 양지면에 대한 현장자료를 총망라해 사진과 함께 싣고 있다.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檀君史略과 檀君殿 진도문화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정신문화 文庫' 논문집을 비롯 고문서 연구소와 장서각에서 삼국유사·환단고기·한철학사상사·역사대전 등의 역사서와 각 지방에 있는 단군전·대종교 자료를 수집해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단군의 역사'·'단순신앙과 사묘' 2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단군·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단군신화의 종교적 의미·단군의 제도화, 2장은 단군 신앙·단군 사묘·단군전 건립운동·진도단군전·대종교·문묘 석전 홀기의 내용을 다뤄 단군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의 전설 정읍문화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만 하는 무형의 구전문화유산을 유형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인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정읍의 전설과 설화를 115가지 수집·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1991년 '정읍의 전설'이란 책을 출간한 이후 10년만에 증보판으로 엮었다. 내 고장의 옛이야기가 그리울 때 송충같은 전설 한편을 읽고 음미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져올 것이다. 김동필 편저

이달의 정기간행물

- 서울문화 창간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지회)
- 간행물윤리 제279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갑천문화 제16호 (대전서구문화원)
- 공주문화소식 제227호 (공주문화원)
- 기전문화예술 제16호 (경기문화재단)
- 당진문화 제18호 (당진문화원)
- 레일로드 2001.10 (철도방송)
-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112호, 제113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문화유성 2001. 10 (유성문화원)
- 文化藝術 2001.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포문화사랑 제59호 (목포문화원)
- 미르 2001.10 (국립극장)
- 민속소식 제73호 (국립민속박물관)
- 민족예술 2001.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민족정론소식 제24호 (자유민주민족회의)
- 수원사랑 2001.10 (수원문화원)
- 야호코리아 2001.10 (국정홍보처)
- 예술세계 2001.10 (한국예총)
- 설충선생과 국어 2001.10 (국립국어연구원)
- 새국어 소식 제39호 (국립국어연구원)
- 스산의 숨결 제215호 (서산문화원)
- 오산문화 23호 (오산문화원)
- 21세기 분당포럼 소식 제16호 (21세기 분당포럼)
- 第一江山 제18호 (강릉문화원)
- 평생교육소식 2001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2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종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255-5123)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대덕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8-8041)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남양주문화원 (www.nyj.or.kr)

'메일링리스트'에 등록만하면 안방서 문화원소식 받을 수 있어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남양주문화원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일링 리스트 등록하기'를 통해 남양주문화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문화원의 홈페이지처럼 '문화원 소개' '공지사항' '주요행사안내' '남양주 역사' '관광안내' '남양주 사랑방'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이중 '남양주 사랑방'은 추천 사이트·남양주 자료실·게시판·방명록·e-mail 등을 한데 묶어 놓은 것으로 일종의 커뮤니티 코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안내'를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의 지도로 만들어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산유적지권, 북한강권, 묘적사권, 천마산권, 축령산권, 광릉권, 수락산권, 미음나루권, 홍·유릉권 등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관광지 텍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봉선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광릉권을 클릭하면 된다. 하지만 교통·숙박정보가 없어 선뜻 관광 일정을 잡

기 어렵다.

'남양주 역사'는 연혁, 선사시대, 고리성과 풍양, 풍양궁설치, 양주목과 양주군, 의병과 3.1 운동으로 시대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한번 휘 둘러보면 남양주를 알 것도 같다. 한데 문화원만의 콘텐츠가 적어 아쉬운 감이 든다. 이를 테면 남양주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서적들의 내용을 다 올리는데 무리라면 요약본이라도 정리해 놓았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더 꼬집는다면 홈페이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에 축제나 행사, 문화정보를 올려 생동감을 불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메일링 리스트 등록하기'도 한층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문**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 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앞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を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を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